문학 개념 이해·적용 08

소설의 구성과 배경·소재

07편에서 살핀 인물·사건·갈등을 바탕으로, 이번 편에서는 사건을 제시하는 짜임과 배경·소재의 작용을 살핍니다. 같은 사건도 어디서 시작하고 어떤 순서로 들려주는지에 따라 독자가 알게 되는 정보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도해 구성·배경·소재 전체 지도

관점	설명	핵심 질문
전개	E01~E05	사건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시간	E06~E10	일어난 차례와 제시한 차례는 어떤가?
결합	E11~E15	이야기가 어떻게 묶이는가?
배경	E16~E20	어떤 조건에서 행동하는가?
소재	E21~E24	대상이 사건에서 무엇을 하는가?

다섯 관점은 순서나 원인·결과가 아니라 소설을 읽는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묶음 1 사건의 전개와 시작·끝

전개	시간	결합	배경	소재
지금 여기	E06~E10	E11~E15	E16~E20	E21~E24
E01~E05				

E01 같은 사건도 들려주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나요?

> **구성(플롯)은 사건을 인과 관계와 표현 의도에 따라 골라 연결하고, 독자에게 보여 줄 순서를 짠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일이 벌어진 차례와 독자가 알게 되는 차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물이 한 일을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골라 원인·결과나 대비가 드러나게 배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결말을 먼저 보여 주면 독자는 "왜 그렇게 되었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결말을 제시했어도 뒤의 원인과 선택은 여전히 읽을 이유가 됩니다.

그냥 늘어놓기	원인과 결과로 엮기
지우가 수리비를 계산했다. 지우가 가게 문을 닫았다.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우는 가게 문을 닫았다.

오른쪽은 왜 문을 닫았는지까지 보여 줍니다. 구성은 이러한 인과 관계뿐 아니라 사건의 대비나 비중을 드러내는 배열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지우가 가게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장면으로 시작한 뒤, 전날 수리비를 계산하던 장면을 보여 줍니다. 폐점이라는 결과를 먼저 본 독자는 전날의 계산이 폐점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게 됩니다.

도해 같은 사건, 다른 첫 장면

사건 순서 일어난 차례	**전날** 수리비를 계산함	→	**다음 날** 마지막으로 문을 닫음(폐점)
서술 순서 보여 준 차례	**다음 날** 마지막으로 문을 닫음(폐점)	→	**전날** 수리비를 계산함

→ 그 줄 안에서의 차례

비유로 이해하기

여행 사진을 찍은 차례대로 놓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도착한 바다 사진부터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여행이라도 사진을 고르고 놓는 방식이 다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의 구성은 시간 배열만이 아니라 사건의 인과 관계·비중·의미 연결까지 포함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구성은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순서대로 적는 일이다.
바로잡기	날짜 순서뿐 아니라 선택·배열·연결과 그 효과를 함께 봅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처음 제시된 장면이 독자에게 어떤 질문을 남기나요?

연결 문항 Q01

E02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은 무엇으로 나누나요?

> **쪽수나 문단 번호가 아니라 사건과 갈등에서 하는 기능으로 나눕니다.**

단계	주로 하는 일	확인할 근거
발단	인물·배경·상황과 사건의 실마리 제시	누가 어떤 처지에서 무엇을 시작하는가
전개	사건이 이어지고 갈등이 본격화됨	목표와 방해가 구체적으로 맞서는가
위기	갈등이 심해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아 중요한 선택·전환을 앞둠	어떤 곤란 때문에 선택이 절박해지는가
절정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드러남	결정적 대면·행동·선택은 무엇인가
결말	갈등의 결과나 이후 상태를 보여 주며 마무리	앞선 선택 뒤 무엇이 달라지거나 남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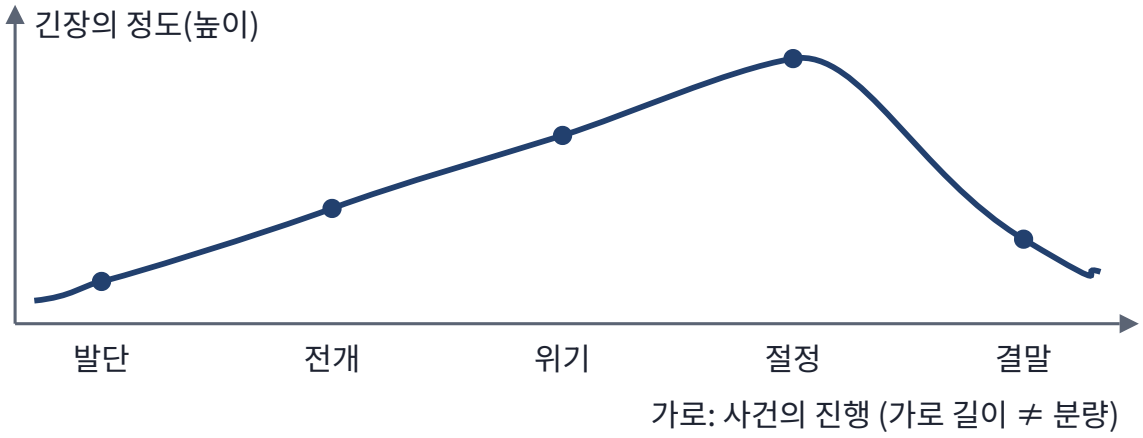
다섯 단계는 분석의 기본 틀입니다. 모든 작품이 다섯 부분으로 똑같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발췌문에 나타나지 않은 단계를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결말부터 들려주는 작품도 있으므로 맨 앞 문장을 곧바로 발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① 배달 일을 시작한 지우의 형편 소개 ② 부당한 통행료를 두고 관리인과 대립 ③ 주민 회의를 앞두고 통행료 기록 수첩을 빼앗길 뻔하여 증거 공개가 어려워짐 ④ 지우가 회의에서 숨겨 둔 사본을 내놓아 관리인의 거짓 주장을 뒤집음 ⑤ 주민들이 바꾼 규칙 아래 배달을 이어 감. 이 예에서는 소개→대립→선택의 압박→결정적 전환→이후 상태가 구별됩니다.

도해 **다섯 단계의 기능**

단계	하는 일	E02의 예
발단	**소개**	배달 일을 시작한 지우의 형편 소개
전개	**대립**	부당한 통행료를 두고 관리인과 대립
위기	**선택의 압박**	통행료 기록 수첩을 빼앗길 뻔함
절정	**결정적 전환**	숨겨 둔 사본을 내놓아 거짓 주장을 뒤집음
결말	**이후 상태**	바뀐 규칙 아래 배달을 이어 감



이 예의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모든 작품이 같은 모양은 아니며, 높이에 수치를 붙이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산길을 오르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출발점에서 길을 살피고, 오르막을 거쳐 가파른 구간에 이른 뒤, 정상에 올라 내려갈 길을 정하고 쉬는 곳에 닿습니다. 사건이 시작되어 긴장이 높아지고 중요한 전환 뒤 마무리되는 흐름에 견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산의 높이는 긴장의 정도에 대응할 뿐 분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설이 봉우리 하나처럼 같은 흐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글을 다섯 등분하면 각 부분이 다섯 단계에 대응한다.
바로잡기	사건의 기능과 앞뒤 관계로 판단하며 단계별 분량은 달라도 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이 부분은 갈등을 준비하나요, 결정적으로 전환하나요, 그 결과를 보여 주나요?

연결 문항 Q02 , Q03 , Q04 , Q08 , Q46 , Q58

E03 인물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나 절정인가요?

> **위험의 크기만 보지 말고, 갈등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거나 방향이 정해지는지 봅니다.**

위기에서는 인물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절박해집니다. 절정에서는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러 결정적 선택이나 행동이 나타납니다. 조용한 고백이 절정일 수도 있고, 큰 폭풍이 중요한 선택을 앞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만으로 둘을 가르기 어려우면 앞뒤 사건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행료 증거가 담긴 수첩을 빼앗길 뻔한 장면은 지우의 발표를 어렵게 합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우가 숨겨 둔 사본을 내놓고 거짓 주장을 뒤집는 장면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두 장면의 기능은 위험한 소리가 얼마나 큰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해 위기와 절정

위기 · 선택을 앞둔 압박	절정 · 사건 방향을 바꾸는 행동
통행료 증거가 담긴 수첩을 빼앗길 뻔함 → 회의에서 증거를 공개하기 어려워짐	회의에서 숨겨 둔 사본을 내놓음 → 관리인의 거짓 주장을 뒤집음

기준은 소리의 크기나 위험의 정도가 아니라, 장면이 갈등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상자 안 →는 그 장면 안의 차례)

비유로 이해하기

승부를 가를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선수가 공 앞에 서 있을 때는 결과를 앞둔 압박이 큽니다. 공을 차서 승부가 갈리는 순간에는 결과가 결정됩니다.

이 비유의 범위 경기의 압박과 결정을 위기·절정의 기능에 견준 것입니다. 소설의 절정은 조용한 고백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승패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소란스럽고 무서운 장면이면 절정이다.
바로잡기	갈등의 흐름 속에서 장면이 하는 일을 판단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이 장면은 결정적 행동을 앞두게 하나요, 그 행동을 보여 주나요?

연결 문항 Q03 , Q08 , Q46 , Q58

E04 첫 장면의 대화·묘사·독백·요약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말의 형식과 무엇을 먼저 드러내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두의 방식	직접 확인할 것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정보
대화	둘 이상이 말을 주고받음	관계·대립·사건의 실마리
묘사	대상·장면의 모습이나 감각을 구체적으로 그림	공간·분위기·현장감
독백	인물이 대화 상대 없이 혼자 하는 말로 자기 생각을 드러냄	고민·욕망·판단
요약	여러 사건이나 긴 시간을 압축해 전함	사건의 개요·경과

한 서두에 둘 이상의 방식이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따옴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화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한 말인지 주고받은 말인지 봅니다. 이 예의 독백은 소리 내어 중얼거리는 혼잣말입니다. 모든 독백을 반드시 소리 내어 하는 말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막힌 길을 두고도 서두를 여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식	짧은 예
대화	“이 길은 막혔어.” “그럼 짐은 어디로 옮기지?”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묘사	길을 가로막은 나뭇가지 끝마다 젖은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독백	지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요약	지우는 사흘 동안 여러 길을 돌아다닌 끝에 짐을 옮길 길을 찾았습니다.

대화와 독백은 따옴표의 유무가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상대의 유무로 구별합니다. 요약은 사흘 동안의 과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도해 서두의 네 방식

대화	묘사
말하는 사람 2명 “이 길은 막혔어.” “그럼 짐은 어디로 옮기지?”	대상의 모습·감각 길을 가로막은 나뭇가지 끝마다 젖은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독백	**요약**
말하는 사람 1명 · 소리 내어 중얼거림 지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사흘 동안의 일 · 한 문장으로 압축 지우는 사흘 동안 여러 길을 돌아다닌 끝에 짐을 옮길 길을 찾았습니다.

따옴표가 있느냐보다 말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느냐로 대화와 독백을 가릅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첫머리에 따옴표가 있으면 대화로 시작한다.
바로잡기	말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서두는 누구의 어떤 정보부터 독자에게 보여 주나요?

연결 문항 Q05 , Q06 , Q07

E05 결말이 나왔는데도 갈등이 남을 수 있나요?

> **이야기의 끝, 갈등의 해결, 독자에게 남는 여운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결말은 작품이 사건을 마무리해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의 끝과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결말	뜻	독자에게 남는 것
닫힌 결말	중심 갈등의 결과나 이후 상태를 분명히 제시하며 끝남	제시된 결과와 그 의미를 확인함
열린 결말	중요한 결과나 이후 선택을 정하지 않은 채 끝남	뒷이야기를 상상하거나 판단할 여지

작품 전체의 결말을 판단할 때는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 봅니다. 사소한 정보가 하나 빠졌다고 모두 열린 결말인 것은 아닙니다. 여운은 열린 결말에서만 생기지 않으며, 닫힌 결말도 선택의 의미를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우가 통행료 반환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수첩을 덮습니다. 돈 문제의 해결과 사과 문제의 미해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수첩을 덮었다”는 동작만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예에서 돈 문제의 결과는 분명하지만, 사과와 관계의 향방은 열린 채로 남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의 결과가 제시되었는지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도해 **결말과 해결 범위**

문제	결말에서 제시된 것	판단
돈 문제	통행료를 돌려받음	해결
사과 문제	누구에게도 사과를 듣지 못함	남음

마지막 동작 “수첩을 덮었다”만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경기가 끝났다는 사실과 두 선수가 화해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마지막 선택이 공정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의 결말은 정해진 경기 시간처럼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마지막 장면이므로 문제와 마음의 상처도 다 해결되었다.

바로잡기 실제로 해결된 문제와 남은 문제를 각각 근거로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끝에 제시된 결과는 어디까지이며 무엇은 제시되지 않았나요?

연결 문항 Q04 , Q07 , Q08 , Q48 , Q52 , Q60

E06 사건 순서와 서술 순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건 순서는 이야기 속 시간, 서술 순서는 독자가 글에서 만나는 차례입니다.**

먼저 각각의 사건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어 날짜·나이·전후 표현으로 이야기 속 시간을 확인하고, 글에 나온 차례와 별도로 적습니다. 서술 순서가 바뀌어도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앞뒤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시된 시간 정보가 없으면 모르는 순서를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 ① 오늘 수아가 첫 전시를 연다. ② 열 살 때 수아가 종이 조각으로 그림을 만든다. ③ 지난달 수아가 전시장을 계약한다. 서술 순서는 ①→②→③, 사건 순서는 ②→③→①입니다. 여기의 화살표는 시간·제시의 차례만 뜻합니다.

도해 시간표와 제시표

사건 순서 이야기 속 시간	**열 살** 종이 조각으로 그림을 만듦 ②	→ **지난달** 전시장을 계약함 ③	→ **오늘** 첫 전시를 엶 ①
서술 순서 글에 나온 차례	**오늘** 첫 전시를 엶 ①	→ **열 살** 종이 조각으로 그림을 만듦 ②	→ **지난달** 전시장을 계약함 ③

→ 그 줄 안에서의 차례(원인·결과가 아님) · ①②③은 E06 예의 문장 번호

비유로 이해하기

휴대전화 사진의 촬영 시각과 앨범에서 사진을 배치한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의 시간은 사진처럼 날짜가 모두 찍혀 있지 않으므로 문맥 단서가 필요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독자가 먼저 읽은 일이 이야기 속에서도 먼저 일어났다.
바로잡기	이야기 속 시간표와 독자가 읽는 차례표를 분리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각 번호 옆에 이야기 속 시점을 적으면 어떤 순서가 되나요?

연결 문항 Q09 , Q10 , Q41 , Q45 , Q50

E07 순행적 구성에서는 인물도 변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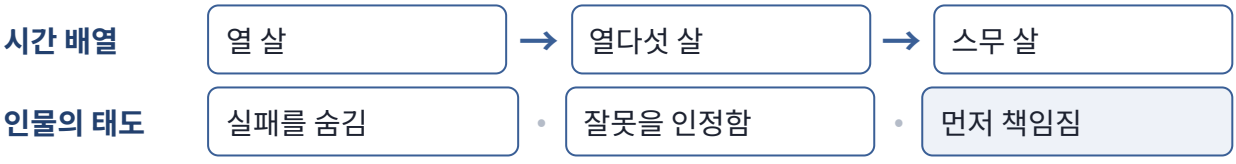
> **순행적·평면적 구성은 시간 배열의 말이며, 인물의 성격 변화와는 별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를 따라 들려주면 순행적 구성입니다.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중간의 몇 해를 건너뛰어도 앞뒤가 바뀌지 않았다면 순행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평면적"이라는 말이라도 평면적 인물은 핵심 성격이 유지되는 인물을 뜻합니다. 두 분류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아가 열 살 때는 실패를 숨기다가, 열다섯 살 때 잘못을 인정하고, 스무 살 때는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 된 과정을 그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시간 배열은 순행적이고 핵심 태도·성격의 변화는 드러납니다.

도해 시간 배열과 성격 변화



시간: 순행적(평면적) 구성

태도: 변화가 드러남

위 줄은 구성(시간 배열), 아래 줄은 인물(성격 변화)을 묻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문틀에 해마다 키를 표시하면 표시는 날짜 순서대로 쌓이지만 아이의 키는 달라집니다. 기록 순서와 기록되는 대상의 변화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키의 변화와 성격의 변화는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말·행동을 근거로 성격이 바뀌었는지 판단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평면적 구성이라면 주인공은 평면적 인물이다.
바로잡기	구성은 시간 배열, 인물 유형은 성격 변화라는 서로 다른 축입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가와 성격이 바뀌는가를 따로 답할 수 있나요?

연결 문항 Q11 , Q12 , Q50

E08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을 계속 거꾸로 돌리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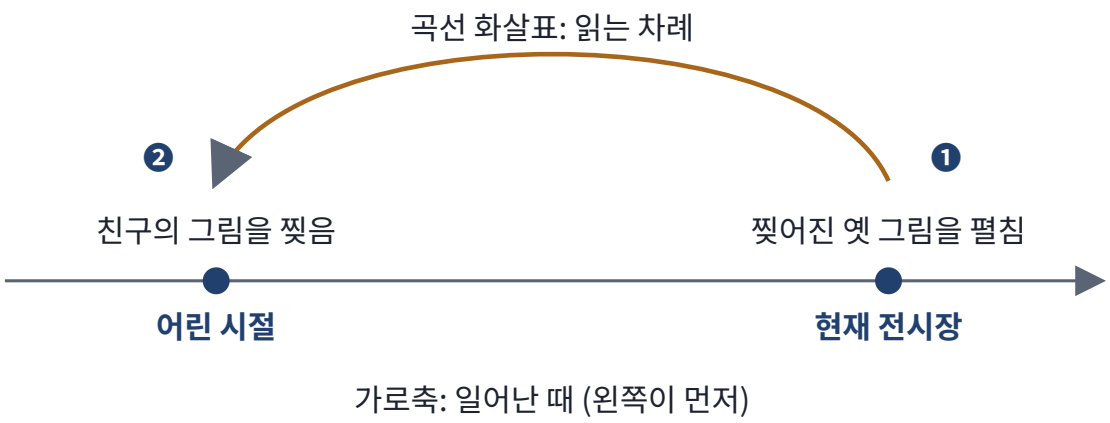
> **사건의 시간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는 것이며, 모든 장면을 역방향으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은 역전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배열도 가능합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 준 뒤 원인을 알게 하거나 두 시기의 모습을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배열만 보고 모든 작품의 효과를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장에서 수아가 찢어진 옛 그림을 펼칩니다. 이어 어린 시절 친구의 그림을 찢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는 처음에 몰랐던 그림의 의미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현재의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과거의 행동과 연결됩니다.

도해 역순행의 시간선



❶ 먼저 읽는 장면(현재) → ❷ 뒤에 읽는 장면(어린 시절). 원인·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요리 방송이 완성된 요리를 먼저 보여 주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며 재료 손질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본 뒤 앞선 과정을 알게 되는 배열입니다.

이 비유의 범위 이 비유는 결과를 먼저 보여 주는 배열을 설명합니다. 순서를 바꾼 구체적 효과는 소설이나 방송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현재→과거→현재로 돌아오면 역순행이 아니다.
바로잡기	제시 순서와 사건의 시간 순서가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과거가 뒤늦게 제시되어 앞 장면의 어떤 의미가 새로 드러나나요?

연결 문항 Q01 , Q10 , Q14 , Q41 , Q45

E09 “예전에”나 과거형이 있으면 모두 회상인가요?

> **과거 언급, 과거 사건의 재현, 전체 구성의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작년에 전학 왔다”는 한마디는 과거를 알려 주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장면에서 지난 사건으로 돌아가 말·행동·상황을 펼쳐 보이면 과거 사건이 장면으로 재현됩니다. 회상은 짧을 수도 있으나, 단순 언급만으로 “과거 장면이 길게 펼쳐진다”고 쓰면 근거를 넘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했다면 과거형이 많아도 순행적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계획한 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 미래 장면으로 옮겨 보여 준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아가 전시장 문을 여는 장면 사이에 “작년 겨울, 수아는 빈 창고 앞에서 친구와 입장료를 두고 다투었다. 친구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가 제시된다면 과거 장면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반대로 수아는 “내일 전시를 열면 손님들이 오겠지.”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글은 전시 전날 밤에서 끝납니다. 손님이 온다는 예상일 뿐, 다음 날 실제 손님을 맞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해 언급·회상·예상

구분	예	시간 이동
과거 정보 (언급)	“작년에 전학 왔다.”	현재 장면 안의 한마디 정보
과거 장면 재현 (회상)	작년 겨울, 수아는 빈 창고 앞에서 친구와 입장료를 두고 다투었다. 친구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과거 장면으로 이동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상	“내일 전시를 열면 손님들이 오겠지.” 글은 전시 전날 밤에서 끝남	미래 장면으로 이동하지 않음

실선 상자는 실제로 펼쳐진 장면, 점선 말풍선은 말 속의 예상입니다. 회상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드라마에서 “작년에 전학 왔어.”라고만 말하면 과거 정보의 언급입니다. 화면이 작년 교실로 바뀌어 그때의 말·행동이 펼쳐지면 과거 장면의 재현입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에는 화면 전환이 없으므로 지난 사건의 말·행동이 펼쳐지는지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회상의 길이만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었다”가 있으면 회상이고, “내일”이 있으면 미래로 시간이 이동한다.

바로잡기 사건이 펼쳐지는 시점이 실제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지난 일의 정보만 주었나요, 그때의 장면을 다시 펼쳤나요?

연결 문항 Q11 , Q13 , Q14 , Q16 , Q20

E10 앞에 나온 작은 물건은 모두 복선인가요?

> **앞 단서가 뒤 사건을 암시하거나 준비하는 연결이 있어야 복선으로 판단합니다.**

복선은 앞의 단서와 뒤의 사건을 한 쌍으로 확인합니다. 사물이 눈에 띄거나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뒤 사건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면 “복선일 가능성”과 “기능이 확인됨”을 구별합니다. 복선은 시간 배열, 소재의 기능과 연결해 볼 수 있지만 작품의 모든 묘사가 복선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수아는 “이 창문 걸쇠는 바람만 불면 빠져”라며 끈을 묶어 둡니다. 뒤에 강풍이 불자 걸쇠가 빠지지만 끈이 창문을 붙잡습니다. 앞서 묶은 끈은 뒤의 피해 방지를 준비합니다.

도해 **복선의 앞뒤 연결**



점선 = 준비 관계(앞 단서가 뒤의 일을 준비함). 강풍이 끈 때문에 분 것은 아닙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시험 전에 챙긴 여분의 연필이 뒤에 부러진 연필을 대신한다면, 앞의 준비가 뒤의 일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이 비유의 범위 일상에서 무엇을 준비했다고 모두 문학의 복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 속 배치와 뒤 사건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처음 나온 물건이 마지막에도 나오면 복선이다.
바로잡기	그 물건의 어떤 성질·행동이 뒤 사건과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앞 단서와 뒤 사건 사이에 어떤 구체적 연결이 있나요?

연결 문항 Q15 , Q16 , Q39 , Q42 , Q47 , Q59

E11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면 복합 구성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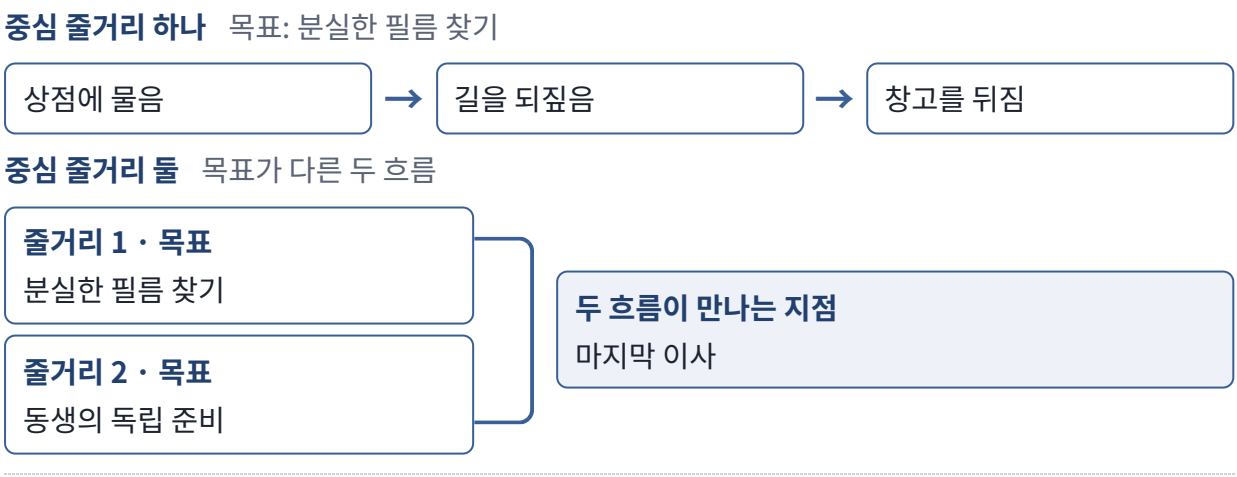
> **작은 행동의 개수보다 중심 줄거리가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봅니다.**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사·실패·재도전이 이어지면 여러 사건이 있어도 하나의 중심 줄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줄거리가 각각 전개되며 서로 연결되면 복합 구성으로 봅니다. 등장인물이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 복합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구성을 판단하려면 전체 줄거리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일 구성은 단편 소설에, 복합 구성은 장편 소설에 많이 나타나지만 길이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분실한 필름을 찾으려고 상점에 묻고 길을 되짚고 창고를 뒤지는 과정은 하나의 찾기 줄거리입니다. 이와 별도로 동생의 독립 준비가 전개되고 두 흐름이 마지막 이사에서 만난다면 두 줄거리의 연결을 살필 수 있습니다.

도해 행동 수와 줄거리 수



위 →: 찾는 과정의 차례 · 아래 묶음선: 두 줄거리가 만나는 지점. 상자 개수가 아니라 목표의 수로 판단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한 줄을 따라 구슬이 여러 개 꿰어져 있어도 줄은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두 줄을 엮는 경우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실제 소설의 줄거리 경계는 구슬 줄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와 사건 연결로 판단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사건 세 개 또는 인물 세 명이면 복합 구성이다.
바로잡기	하나의 중심 사건을 이루는 부분인지 별도의 줄거리인지 구별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각 흐름에 독자적인 목표·문제·전개가 있나요?

연결 문항 Q17 , Q18

E12 옛이야기가 나오면 액자 구성인가요?

> **이야기를 듣거나 전달하는 외부 이야기(바깥 이야기, 외화) 안에 내부 이야기(안쪽 이야기, 내화)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액자 구성에서는 외부의 만남·전달 상황과 그 안에서 들려주는 내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이야기가 과거의 일일 수 있지만, 과거라는 사실만으로 액자 구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부로 돌아오는 장면은 이야기의 안팎을 확인하는 단서이며, 경계가 문단 경계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 이야기가 중심 사건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인물이 직접 듣거나 겪은 이야기로 전달하면, 내부 이야기에 실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사실감·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외부 인물이 이야기를 들은 뒤 달라지면 그 변화로 내부 이야기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나는 수선 가게에서 여행자를 만납니다. 여행자는 자신이 길을 잃었던 하루를 들려줍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유나는 여행자를 의심하던 마음을 거두고 의자를 내줍니다. 가게의 만남이 외부 이야기, 여행자의 하루가 내부 이야기입니다.

도해 **액자의 안과 밖**

외부 이야기(바깥) · 만남과 전달
수선 가게에서 유나가 여행자를 만남

내부 이야기(안쪽) · 들려준 경험
여행자가 길을 잃었던 하루

이야기가 끝난 뒤 유나가 의심을 거두고 의자를 내줌

기준은 과거·현재가 아니라, 바깥의 전달 상황 안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가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 있듯, 바깥 만남 안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모든 작은 인용·대사·편지 한 줄이 독립된 안쪽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어린 시절을 혼자 떠올렸으므로 액자 구성이다.
바로잡기	회상의 시간 이동과 이야기가 포함되는 안팎의 구조는 다른 기준입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누가 어디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달하나요?

연결 문항 Q19 , Q20 , Q24 , Q43 , Q49 , Q52

E13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시간의 일인가요?

> **병렬식 구성은 이야기 흐름의 나란한 배치이며, 동시 발생 여부는 시간 근거로 따로 판단합니다.**

두 인물이나 두 집단의 독립적인 이야기 흐름을 나란히 배치하면 공통점·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번갈아 보여 주는 것만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각의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흐름이 끝에 만나는지 여부도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같은 인물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시간 배열과도 구별합니다.

예를 들면

앞부분에서는 십 년 전 섬에서 작은 가게를 연 언니의 과정을, 다음 부분에서는 올해 도시에서 가게를 여는 동생의 과정을 보여 줍니다. 서로 다른 때의 두 흐름을 나란히 놓아 선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해 **서로 다른 시기의 병렬**

십 년 전 · 섬	**언니** 섬에서 작은 가게를 엶
	나란히 놓아 **다른 시기의 선택을 비교** (두 흐름을 잇는 원인·시간 선은 없음)
올해 · 도시	**동생** 도시에서 가게를 엶

비유로 이해하기

두 사람의 여행 기록을 나란한 두 칸에 놓아도 여행 날짜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범위 단순한 비교표 자체가 소설의 병렬식 구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독립적인 이야기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두 흐름이 번갈아 나오므로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바로잡기	병렬 배치와 동시성은 다른 판단입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두 흐름에서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연결 문항 Q18 , Q21 , Q24 , Q53 , Q56

E14 피카레스크식과 옴니버스식 구성은 무엇으로 묶이나요?

같은 중심인물의 여러 삽화인지, 공통 주제·틀 아래 묶인 여러 이야기인지 확인합니다.

구성	묶는 중심	확인할 점
피카레스크식	동일한 중심인물	여러 삽화가 각각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전개되는가
옴니버스식	공통 주제나 틀	인물·시공간 등이 다른 여러 이야기를 무엇으로 묶는가

삽화는 여기서 그림이 아니라, 비교적 독립적인 짧은 사건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 등장해도 앞 사건이 뒤 사건을 긴밀하게 일으키는 한 줄거리라면 곧바로 피카레스크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통 주제만으로 인물·사건까지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떠돌이 수선공이 세 마을에서 각각 겪은 독립적인 사건들은 같은 인물을 축으로 묶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돌려주지 못한 물건” 이야기를 다른 시대·장소에서 하나씩 들려준다면 공통 주제나 틀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도해 **여러 이야기를 묶는 기준**

피카레스크식 · 같은 중심인물

떠돌이 수선공

마을 1의 사건	마을 2의 사건	마을 3의 사건

사건마다 비교적 독립적으로 마무리됨

옴니버스식 · 공통 주제·틀

공통 주제: “돌려주지 못한 물건”

인물 가 다른 시대·장소	인물 나 다른 시대·장소	인물 다 다른 시대·장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완결된 이야기

여기서 ‘삽화’는 그림이 아니라 비교적 독립적인 짧은 사건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같은 탐정이 매회 다른 마을에서 독립된 사건을 해결하는 연작은 같은 인물이 묶는 중심입니다.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완결된 이야기를 모은 영화는 공통 주제가 묶는 중심입니다.

이 비유의 범위 중심인물과 공통 주제라는 묶음 기준을 비교한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각 이야기의 독립성도 확인하며 작품의 이름이나 매체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짧은 이야기가 여럿이면 피카레스크식과 옴니버스식 중 아무 이름이나 써도 된다.
바로잡기	중심인물의 지속과 공통 주제·틀을 각각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각 이야기의 독립성과 그것들을 묶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22 , Q23

E15 한 작품에 액자·역순행·병렬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 **분류 기준이 다르면 여러 구성상의 특징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배열, 줄거리의 수, 이야기의 안팎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액자 속 내부 이야기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순행하거나, 결과를 먼저 보여 주며 역순행할 수 있습니다.

병렬식은 독립된 흐름을 어떻게 나란히 배치했는지에, 옴니버스식은 각각 완결된 여러 이야기를 어떤 공통 주제·틀로 묶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병렬식 구성을 옴니버스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 작품에 여러 이름을 붙일 때는 각 기준의 근거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나가 여행자의 말을 듣는 외부 장면 안에, 여행자가 결말부터 들려주는 내부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안팎의 구조는 액자로, 내부 이야기의 시간 배열은 역순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해 **분류 기준은 겹칠 수 있다**

판단 기준	이 예의 근거	붙일 수 있는 이름
이야기의 안팎	유나가 여행자의 말을 듣는 외부 장면 안에 여행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음	액자
내부 이야기의 시간 배열	여행자가 결말부터 들려줌	역순행

기준이 다르면 두 이름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순행이면서 역순행일 수는 없음).

비유로 이해하기

한 학생을 “2반 학생”, “축구부원”, “안경 쓴 학생”이라고 동시에 부를 수 있습니다. 반·활동·외모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에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범위의 시간 배열을 따질 때와 작품 전체·일부분을 각각 따질 때를 섞지 않습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액자 구성이므로 순행·역순행이라는 설명은 붙일 수 없다.

바로잡기 서로 다른 기준의 이름은 근거가 있으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내가 붙인 두 이름은 같은 기준을 두고 경쟁하나요, 다른 기준을 설명하나요?

연결 문항 Q12 , Q20 , Q21 , Q23 , Q24 , Q43 , Q50 , Q53

한눈에 가르기 — 이야기를 결합하는 방식

묻는 기준	판별 질문	이름
시간의 배열	일어난 차례대로 들려주는가?	순행적(평면적) / 역순행적(역전적·입체적)
줄거리의 수	별도의 목표·문제를 가진 줄거리가 몇 개인가?	단일 / 복합
이야기의 안팎	내부 이야기를 감싸는 외부의 전달 틀이 있는가?	액자
흐름의 배치	독립된 흐름을 나란히 놓았는가?	병렬식
묶는 중심	같은 주인공이 독립된 사건들을 잇는가? / 여러 완결된 이야기를 공통 주제로 묶는가?	피카레스크식 / 옴니버스식

서로 다른 기준은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각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묶음 4 배경의 성격과 작용

E16 배경은 언제·어디서인지만 찾으면 되나요?

> **언제·어디서를 찾은 뒤 그 조건이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읽습니다.**

시간적 배경에는 시대·계절·시각 등이, 공간적 배경에는 나라·마을·방·길 등이 포함됩니다. 배경은 인물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선택의 조건을 만듭니다. “겨울 새벽의 산길”에는 시간과 장소 정보가 함께 있습니다. 다만 배경 이름만 찾아도 사건의 원인이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벽 첫 배를 기다리는 민서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항구 매점 앞에 서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과 항구라는 장소를 확인한 뒤, 물건을 살 수 없는 이유와 이동 방법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연극 무대에 놓인 벽과 문은 배우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소설의 배경도 인물의 행동 조건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의 배경에는 눈에 보이는 장소뿐 아니라 제도·마음·처지도 포함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며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배경을 묻는 문제는 계절과 장소의 이름만 찾으면 끝난다.
바로잡기	배경 정보가 선택·사건·분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이 조건이 달라지면 인물의 행동도 달라질까요?

연결 문항 Q25 , Q32

E17 겨울은 시간적 배경인가요, 자연적 배경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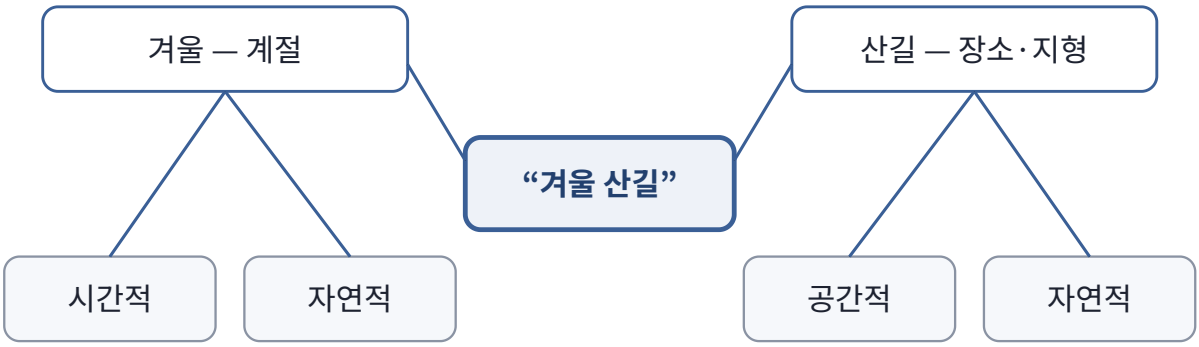
> **한 정보가 여러 배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봅니다.**

계절·날씨·지형 같은 자연환경은 자연적 배경입니다. 계절은 시간 정보이기도 하고 산·강 같은 지형은 공간 정보이기도 합니다. 제도·관습·계층·역사·문화처럼 삶을 둘러싼 사회 조건은 사회적 배경입니다. 시대의 제도·관습을 가리킬 때는 시대적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시대의 연대에 초점을 두면 시간적 배경이므로, 어떤 조건을 뜻하는지 확인합니다. “누군가 화를 낸다”는 개인 반응만으로 사회 제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서가 눈 쌓인 고개를 넘지 못하는 것은 자연환경의 제약입니다. 길은 열려 있지만 이 마을의 통행증 제도 때문에 지나가지 못한다면 사회 조건의 제약입니다. 두 제약이 같은 장면에서 함께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해 **배경의 겹치는 성격**



겨울은 시간적·자연적 성격을, 산길은 공간적·자연적 성격을 함께 가짐

별도 칸 · 사회 조건
마을의 **통행증 제도** 때문에 길이 열려 있어도 지나가지 못함 · **사회적 배경**

— 분류(무방향 선). 한 정보가 두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겨울은 달력에서는 언제인지 알려 주고, 일기 예보에서는 추위와 눈을 생각하게 합니다. 같은 겨울을 시간과 자연환경이라는 두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계절 자체의 분류와 사건에 미친 작용은 다릅니다. 겨울이 행동을 막거나 돕는다고 설명하려면 그 연결이 지문에 있어야 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시간적 배경으로 분류한 겨울은 자연적 배경이 될 수 없다.
바로잡기	분류 기준이 겹칠 수 있으므로 판단하는 면을 밝힙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인물을 가로막는 것은 날씨·지형인가요, 제도·관습인가요?

연결 문항 Q25 , Q26 , Q27 , Q28 , Q32 , Q44 , Q54 , Q57

E18 인물의 마음과 당장의 처지도 배경이 되나요?

> **심리적 배경은 행동의 바탕이 되는 내면에, 상황적 배경은 당장 처한 사정에 초점을 둡니다.**

실패의 기억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한다면 그 내면의 조건을 심리적 배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정은 상황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감정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쁜 마음을 한 번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행동의 지속적인 바탕이라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서는 전에 사람을 믿었다가 물건을 잃은 기억 때문에 낯선 이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기 전까지 짐을 옮겨야 합니다. 경계심의 바탕이 된 기억과 출항이라는 마감 조건을 나누어 읽습니다.

도해 마음의 바탕과 당장의 사정

한 장면에 함께 작용하는 두 조건

심리적 배경 물건을 잃은 기억 마음속	⇒	**행동** 낯선 이의 도움을 거절함
상황적 배경 배가 떠나기 전이라는 마감 바깥 사정·시간	⇒	**해야 할 일** 짐을 옮겨야 함

⇒ 조건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움을 받았는지, 운반에 성공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지난 기억을 마음속 무거운 돌에, 지금 다가오는 마감을 손목시계 바늘에 견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시간인데, 두 조건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작용합니다.

이 비유의 범위 기억이 모두 행동의 바탕이 되거나 항상 부담인 것은 아닙니다. 그 기억이 실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심리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
바로잡기	내면의 바탕과 당장의 사정을 구별하되 함께 성립할 수 있음을 봅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행동을 설명하는 기억·생각과 외부의 마감·처지는 각각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29 , Q30 , Q32 , Q57

E19 비가 오면 인물도 슬프다고 보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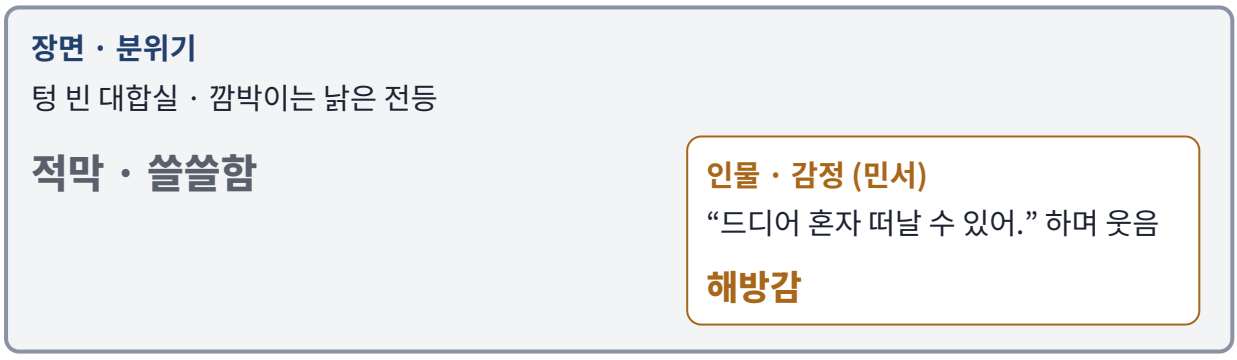
> **날씨·장면의 분위기·인물의 감정은 각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위기는 배경·사건·표현이 함께 만드는 장면의 전체 느낌입니다. 같은 비도 답답함, 안도감, 활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막한 방에서 인물이 홀가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장면의 분위기와 인물의 감정이 일치하는지 대비되는지 실제 표현으로 판단합니다. 어두운 색이나 비라는 낱말만으로 뜻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텅 빈 대합실에서 낡은 전등이 깜박여 쓸쓸한 분위기가 납니다. 하지만 민서는 “드디어 혼자 떠날 수 있어”라며 웃습니다. 적막한 공간과 인물의 해방감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도해 분위기와 인물 감정



장면의 느낌과 인물의 감정은 각각의 근거(배경 묘사 / 인물의 말·행동)로 따로 읽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시끌벅적한 생일잔치에서도 혼자 시무룩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면의 활기와 한 사람의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분위기와 감정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미리 정하지 말고 인물의 말·행동과 장면의 표현을 각각 봅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배경이 쓸쓸하므로 인물도 슬프다.
바로잡기	인물의 말·행동·생각이 장면의 느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인물의 감정을 직접 뒷받침하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연결 문항 Q31 , Q32

E20 배경이 사건에 작용했다는 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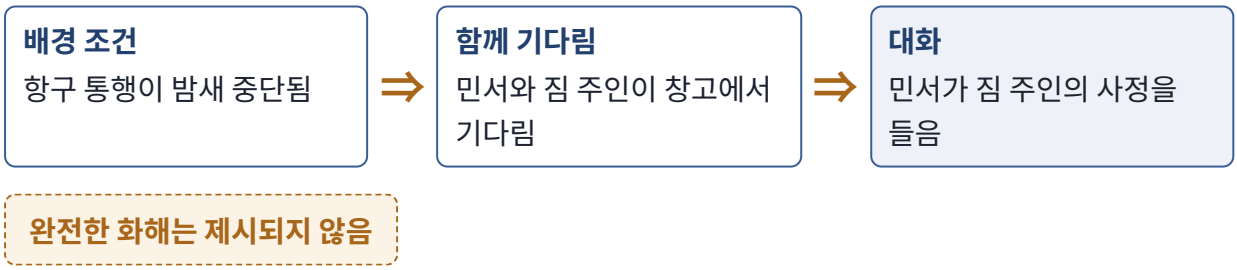
환경·조건, 인물의 선택, 사건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어 설명합니다.

배경은 행동을 제한하거나 가능하게 하고 갈등을 이해하게 하며, 분위기·주제·현장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능을 여러 개 외워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막차가 끊김→같은 장소에 머묾→대화가 시작됨"처럼 지문에 있는 연결을 확인합니다. 이때 화살표는 실제로 제시된 원인·결과에만 씁니다.

예를 들면

항구의 통행이 밤새 중단되어 민서와 짐 주인은 함께 창고에서 기다립니다. 혼자 떠나려던 민서는 그곳에서 짐 주인의 사정을 듣습니다. 통행 중단은 두 사람이 머물며 대화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것만으로 두 사람의 완전한 화해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해 배경에서 사건으로



⇒ 지문에 나온 원인·결과만 잇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보드게임의 길과 이동 규칙은 말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소설의 배경도 행동 가능한 범위를 이해하게 합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의 배경은 규칙판처럼 고정된 장애물만이 아닙니다. 인물과 사건이 배경의 의미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배경은 언제나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상징한다.
바로잡기	이 장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행동·사건과 연결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선택이나 사건이 가능해졌나요?

연결 문항 Q26 , Q27 , Q30 , Q40 , Q44 , Q54 , Q56 , Q57

한눈에 가르기 — 배경 여섯 가지

배경	판별 질문	이번 편 예
시간적 배경	언제인가?	새벽, 늦겨울
공간적 배경	어디인가?	항구 매점 앞, 산길
자연적 배경	어떤 날씨·계절·지형인가? 인물의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눈 쌓인 고개, 가뭄
사회적 배경(시대의 제도·관습 포함)	어떤 제도·관습·규칙이 행동을 막거나 돕는가?	통행증 제도, 소유자만 출마
심리적 배경	어떤 기억·생각이 행동의 바탕인가?	물건을 잃은 기억
상황적 배경	지금 어떤 마감·처지에 놓였는가?	배가 떠나기 전까지

한 정보가 두 칸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은 시간적·자연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이라는 표현도 연대를 뜻하는지, 그 시대의 사회 제도를 뜻하는지에 따라 초점이 다릅니다.

묶음 5 소재의 기능과 변화

E21 소재는 무엇이고, 마음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 **소재는 작품을 이루는 구체적 대상이며, 인물의 기억·감정을 드러내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건·자연물 등 구체적 대상이 작품에서 무엇을 하는지 읽습니다. 소재의 이름 자체에는 정답 기능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인물이 대상을 어떻게 만지고 바라보고 피하는지, 무엇을 떠올리는지 봅니다. 대상이 기억을 불러오는 경우와 기억 자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은재는 오래된 수건의 가장자리를 만지며 동생과 함께 일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수건은 동생과의 기억을 불러오는 대상입니다. 같은 수건이 다른 장면에서 물을 닦는 도구로만 쓰인다면 그 장면의 기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영화에 반지라는 소품이 나와도 보관하는지, 버리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건의 이름과 배우가 하는 행동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에서는 인물이 대상을 만지고 바라보고 떠올리는 문장을 근거로 기능을 판단합니다. 영화의 화면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낡은 물건이므로 가난을 상징한다.
바로잡기	낡았다는 성질 외에 인물의 기억·행동과 연결되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이 대상 앞에서 인물은 무엇을 떠올리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연결 문항 Q33 , Q36 , Q51 , Q52

E22 한 물건이 사건과 갈등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나요?

> **같은 소재가 만남을 이어 주면서 대립을 일으키거나 해소하는 데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매개: 둘 사이를 이어 줌. 사건을 매개한다는 것은 인물의 만남이나 다음 사건을 이어 준다는 뜻입니다. 갈등에 관여하는 방식에는 유발·심화·해소의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기능인지는 전후 변화로 확인합니다. 물건을 찾았다고 사람 사이의 대립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물의 실제 반응과 해결된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은재는 문 앞에 떨어진 영수증의 가게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그 영수증의 결제 기록을 함께 읽고 누가 값을 치렀는지 확인하여 다툼을 끝냅니다. 영수증은 만남을 이어 주고 오해를 푸는 근거로도 작용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한 열쇠가 문을 여는 데 쓰이고, 열쇠를 돌려주는 일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소설의 소재 기능은 실제 물건의 용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문 속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사건을 이어 준 소재는 갈등 해소 소재라고도 부를 수 없다.
바로잡기	같은 대상의 여러 기능을 각각의 사건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물건이 등장한 뒤 누가 만나고, 어떤 대립이 달라졌나요?

연결 문항 Q15 , Q34 , Q35 , Q38 , Q40 , Q44 , Q46 , Q47 , Q51 , Q58 , Q59 , Q60

E23 자주 나오는 물건이면 상징이고 주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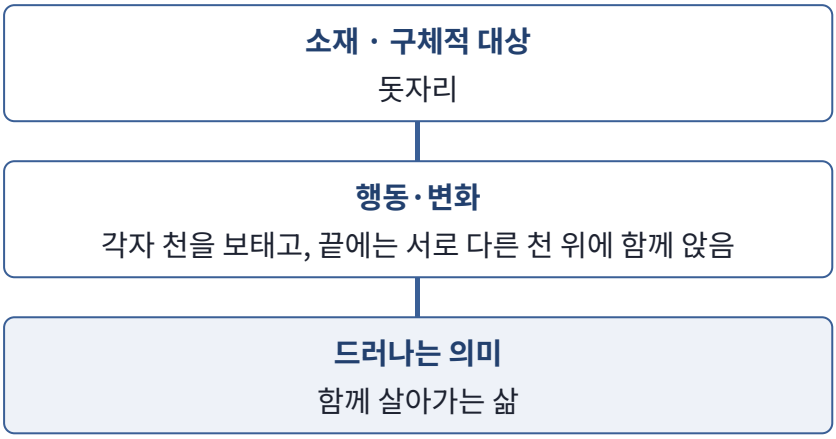
> **반복만으로 상징을 확정하지 말고, 대상과 더 넓은 의미를 잇는 근거를 찾습니다.**

소재는 구체적 재료이고, 상징은 그 대상을 통해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주제는 작품이 사건과 인물의 선택을 통해 드러내는 중심 의미입니다. 물건의 이름 하나를 주제라고 쓰기보다 어떤 삶의 문제나 가치를 드러내는지 설명합니다. 반복·대비·변화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단순한 반복 횟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찢어진 돗자리에 각자 천을 보태고, 끝에는 서로 다른 천 위에 함께 앉습니다. 돗자리의 변화와 인물들의 협력이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돗자리”만 적으면 소재 이름에 머뭅니다.

도해 **소재에서 중심 의미까지**



대상·행동을 근거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돗자리”만 쓰면 소재 이름에 머뭅니다.

세로선은 원인·결과가 아니라 해석의 연결입니다. 모든 소재가 상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반지는 구체적 소재이고, 약속을 잊지 않으려 보관하는 행동 속에서 약속이라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작품은 그 행동과 결말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범위 반지가 언제나 약속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 안에서 대상과 의미를 이어 주는 행동·반복·대비·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세 번 나온 물건은 상징이며 그 물건 이름이 주제이다.
바로잡기	구체적 대상과 그 대상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를 구별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반복이나 변화가 인물의 선택·결말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연결 문항 Q36 , Q37 , Q39 , Q40 , Q55

E24 소재의 기능이 중간에 바뀌면 해석이 틀린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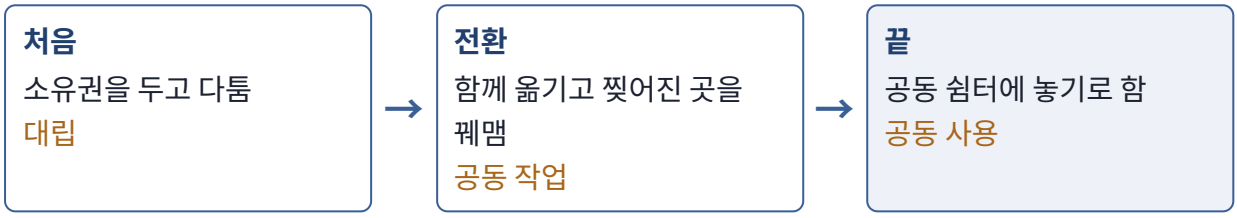
> **같은 소재도 사건의 전후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거나 여러 기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의 대상이던 물건이 나중에는 함께 일한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의 기능을 작품 끝까지 고정하지 않습니다. 복선은 앞 단서와 뒤 사건의 준비 관계, 상징은 구체적 대상과 더 넓은 의미의 관계입니다. 한 대상에 두 기능이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재와 이웃은 돗자리 소유권을 두고 다툽니다. 비가 새자 함께 돗자리를 옮기고 찢어진 곳을 꿰맵니다. 마지막에 공동 쉼터에 놓기로 합의합니다. 다툼의 대상이던 물건이 협력과 공동 사용의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도해 같은 돗자리의 기능 변화



→ 전후의 차례. 한 소재가 네 기능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쉬는 시간에는 서로 먼저 쓰겠다고 다투던 축구공을 반 대항전에서는 같은 편끼리 주고받으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을 둘러싼 행동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비유의 범위 대상이 등장한 것만으로 기능 변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는 대상을 대하는 전후 행동으로 다툼·협력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오해와 바로잡기

오해	처음에 갈등을 일으킨 소재는 끝까지 갈등만 심화한다.
바로잡기	처음·전환·끝에서 대상에 대한 행동과 의미를 비교합니다.

근거를 묻는 질문 이 물건을 대하는 행동이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연결 문항 Q35 , Q37 , Q38 , Q39 , Q48 , Q51 , Q55 , Q56 , Q58 , Q60

한눈에 가르기 — 소재가 하는 일

소재의 기능	판별 질문	근거로 볼 것
심리 드러내기	이 대상 앞에서 무엇을 떠올리거나 느끼는가?	만지기·바라보기·피하기와 기억·감정
사건 매개	이 대상 때문에 누가 만나거나 다음 일이 생기는가?	대상 등장 전후의 만남·행동
갈등 관여	이 대상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나 커지거나 풀리는가?	대상 전후의 대립 변화
주제와 연결	이 대상의 변화가 작품의 중심 의미와 이어지는가?	반복·대비·변화와 결말

하나의 소재가 반드시 네 기능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문에서 확인되는 기능만 근거와 연결합니다.

정리 개념 정리

전개

개념	핵심 판단
구성·플롯	사건을 인과 관계와 표현 의도에 따라 골라 연결·배열
발단	인물·배경·상황과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
전개	사건이 이어지며 갈등이 본격화
위기	갈등이 심해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아 선택·전환의 압박이 커짐
절정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며 결정적 행동·선택이 드러남
결말	갈등의 결과나 이후 상태를 보여 주며 마무리
서두의 방식	대화·묘사·독백·요약의 형식과 기능을 구별
결말과 여운	끝맺음·문제 해결·남는 의미를 따로 판단
닫힌 결말	중심 갈등의 결과나 이후 상태를 분명히 제시하며 끝남
열린 결말	중요한 결과나 이후 선택을 정하지 않고 끝남
독백	대화 상대 없이 혼자 하는 말로 생각을 드러냄

시간

개념	핵심 판단
복선	앞 단서가 뒤 사건을 암시하거나 준비
사건 순서	이야기 속에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차례
서술 순서	독자가 글에서 사건을 만나는 차례
순행적·평면적 구성	사건의 시간 순서를 따라 제시
역순행적·역전적·입체적 구성	사건의 시간 순서를 바꾸어 제시
회상	지난 일을 떠올리거나 과거 사건으로 돌아가 제시

결합

개념	핵심 판단
단일 구성	하나의 중심 줄거리를 따라 전개

개념	핵심 판단
복합 구성	둘 이상 줄거리가 각각 전개되며 연결
액자 구성	외부 이야기(외화) 안에 내부 이야기(내화)가 포함 / 전달 방식이 사실감·신뢰감을 줄 수 있음
병렬식 구성	독립적인 이야기 흐름을 나란히 배치
피카레스크식 구성	같은 중심인물을 축으로 독립적인 삽화들을 연결
옴니버스식 구성	여러 독립 이야기를 공통 주제나 틀로 묶음

배경

개념	핵심 판단
배경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벌어지는 조건
시간적 배경	시대·계절·시각 등 시간 조건
공간적 배경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와 공간
자연적 배경	날씨·계절·지형 등의 자연 조건
사회적 배경(시대의 제도·관습 포함)	제도·관습·계층·역사·문화 등 사회 조건
심리적 배경	행동의 바탕이 되는 내면 조건
상황적 배경	인물이 당장 처한 사정·마감·제약
분위기	배경·사건·표현이 만드는 장면의 전체 느낌

소재

개념	핵심 판단
소재	작품을 이루는 구체적 대상
소재와 심리	대상이 기억·감정을 드러내거나 불러옴
소재와 사건 매개	대상이 만남이나 다음 사건을 이어 줌
소재와 갈등	대상이 대립의 유발·심화·해소에 관여
소재와 주제	대상의 변화·사용과 작품의 중심 의미를 연결

헷갈리는 짝

헷갈리는 짝	가르는 기준
평면적 구성 ↔ 평면적 인물	구성은 시간 배열, 인물은 성격 변화
회상 ↔ 액자 구성	회상은 지난 일의 떠올림·재현, 액자는 이야기 안팎의 포함 관계
병렬식 ↔ 동시에 일어남	병렬은 배치 방식, 동시성은 시간 근거로 따로 판단
분위기 ↔ 인물의 감정	분위기는 장면 전체의 느낌, 감정은 인물의 말·행동·생각으로 확인
소재 ↔ 상징 ↔ 주제	구체적 대상 / 대상이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 / 작품의 중심 의미
복선 ↔ 그냥 다시 나온 물건	앞 단서와 뒤 사건의 구체적인 암시·준비 관계가 있는가?

PART 2

개념 적용

사건의 전개와 시작·끝

Q01~Q08

Q01 **이 작품의 사건 배열이 만드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은 나래가 완성한 나무 의자를 태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 뒤 의자를 만들던 시절로 돌아가, 의자에 새긴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나래가 알게 된 과정을 들려준다.

① 제작부터 폐기까지 차례로 보여 주어 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②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제작 과정을 나란히 놓아 선택을 비교한다.

③ 의자 제작 장면을 생략하여 약속이 거짓인지 독자가 판단하게 한다.

④ 의자를 태운 이유를 궁금하게 한 뒤 앞선 사건으로 설명한다.

Q02 **이 부분이 발단의 기능을 한다고 판단할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 첫 부분은 산골 마을에 온 새 우편 배달원과 끊어진 다리를 소개한다. 배달원은 강 건너 집에 전할 첫 편지를 받아 든다. 아직 강을 건널 방법은 정하지 못했다.

① 배달 뒤의 생활을 보여 주며 갈등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②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③ 새 인물의 처지와 배달을 시작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④ 대립이 가장 격해진 순간에 인물의 결단을 보여 주고 있다.

Q03 **㉢과 ㉣의 기능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 줄거리] ㉠ 마을에 공동 작업장이 생긴다. ㉡ 운영 시간을 두고 두 모임이 맞선다. ㉢ 오늘 합의하지 못하면 작업장이 닫힐 처지가 되어 대립이 격해진다. ㉣ 마지막 회의에서 두 모임의 대표가 공동 시간표에 서명하며 폐쇄를 막는다. ㉤ 사람들은 새 시간표에 따라 작업장을 이용한다.

① ㉢은 사건의 마무리이고 ㉣은 앞선 일로 돌아가는 회상이다.

② ㉢은 배경 소개에 머물고 ㉣에서 두 모임의 대립이 시작된다.

③ ㉢은 절정에서 갈등을 끝내고 ㉣은 그 이후 생활을 보여 준다.

④ ㉢은 위기를 높이고 ㉣은 결정적 합의를 이루는 절정이다.

Q04 **결말의 갈등 해결 범위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이웃은 담장을 어디에 세울지 다투다가 경계선을 함께 확인해 합의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둘은 정한 선에 말뚝을 박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쓴 모욕적인 편지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편지 이야기가 나올 때면 둘은 여전히 서로를 탓했다.

① 결말에 대립이 남았으므로 이 부분은 발단으로 보아야 한다.

② 함께 말뚝을 박았으므로 편지에 대한 사과도 이루어진 셈이다.

③ 경계는 합의했지만 편지로 생긴 관계 문제는 남아 있다.

④ 편지 문제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경계에 대한 합의도 취소되었다.

Q05 **두 서두의 주된 제시 방식과 역할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번에도 모른 척하면 되잖아. 그런데 수빈이가 혼자 책임지게 둘 수는 없어.” 하람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중얼거렸다.
[나] 하람은 한 달 동안 동네를 돌며 수리할 자전거를 모았다.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열 대를 고쳐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① [가]는 대화로 친구의 반응을, [나]는 묘사로 작업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② [가]는 독백으로 고민을, [나]는 요약으로 일의 경과를 드러낸다.

③ [가]는 묘사로 복도의 모양을, [나]는 대화로 수리 방법을 알려 준다.

④ [가]는 요약으로 지난 결과를, [나]는 독백으로 인물의 속마음을 전한다.

Q06 **이 서두의 주된 제시 방식과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도 문을 안 열었네.” 도윤이 셔터를 두드렸다. “어젯밤에 이 안내문이 붙었어.” 서연이 접힌 종이를 가리켰다. 그 아래에는 가게를 비운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① 묘사를 통해 가게 안의 물건 배치와 넓이를 상세히 보여 준다.

② 독백을 통해 가게 주인의 결심과 속마음을 직접 드러낸다.

③ 요약을 통해 가게가 운영된 여러 해의 과정을 압축한다.

④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확인하는 가게의 변화를 드러낸다.

Q07 **서두와 결말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 골목은 젖은 돌 냄새로 가득했고, 닫힌 창문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마지막 문장: 예서는 답장을 쓰려고 펜을 들었다. 어떤 말을 적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① 서두는 감각적 묘사이고 끝에는 답장 내용이 미정이다.

② 서두는 오래된 사건을 요약하고 끝은 답장을 받은 결과를 제시한다.

③ 서두는 골목의 소음을 강조하고 끝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④ 서두는 인물의 문답을 제시하고 끝은 상대의 답변까지 보여 준다.

Q08 **이 결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표결에서 공동 마당을 지키기로 결정되자 매각 요구는 철회되었다. 마지막에는 몇 달 뒤 주민들이 그 마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과, 빈 의자에 놓인 떠난 이웃의 이름표가 제시되었다.

① 몇 달 뒤의 식사는 앞선 결정 이후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 준다.

② 매각 요구가 철회되었으므로 떠난 이웃을 떠올릴 여운도 사라졌다.

③ 표결은 매각을 둘러싼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④ 빈 의자와 이름표는 자리에 없는 이웃을 독자가 생각하게 한다.

Q09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간 순서로 적절한 것은?**

㉠ 6월에 혜린은 첫 공연을 열었다. ㉡ 2월에 혜린은 낡은 극장을 빌렸다. ㉢ 5월에 무대 수리를 마쳤다. 작품에는 ㉠, ㉡, ㉢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Q10 **다음 글에 사건이 제시된 차례(서술 순서)대로 사건 카드를 늘어놓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인이 된 영호는 서랍에서 붉은 배지를 꺼냈다. 배지를 쥐자 오래전 대회 날이 떠올랐다. 시상대에 오른 어린 영호의 목에 그 배지가 걸렸고, 관중석의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다시 지금, 영호는 배지를 손자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사건 카드

㉠ 어린 영호가 대회에서 배지를 받는다.

㉡ 노년의 영호가 배지를 손자에게 건넨다.

㉢ 노년의 영호가 서랍에서 배지를 꺼낸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Q11 **이 작품의 시간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제 아침 나는 텃밭의 풀을 뽑았다. 낮에는 물을 주었다. 저녁이 되자 도구를 씻어 창고에 넣었다. 이 세 문장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이다.

① 아침과 저녁의 일이 서로 다른 인물의 흐름으로 병렬된다.

② “-었다”가 반복되므로 현재에서 과거로 거듭 회상한다.

③ 도구를 씻는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텃밭 일을 뒤에 밝힌다.

④ 과거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행적으로 제시한다.

Q12 **구성과 인물의 변화를 함께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호는 어린 시절 자기 잘못을 남에게 미루었다. 십 년 뒤에는 친구의 손해를 보고 먼저 책임을 인정했다. 그 뒤에도 지호는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고치는 태도를 이어 갔다. 작품은 이 차례대로 제시된다.

① 순행적으로 제시되므로 인물의 책임 태도는 유지된다고 본다.

② 시간 배열은 평면적 구성이며 인물의 책임 태도는 변화한다.

③ 십 년을 건너뛰었으므로 과거로 돌아가는 회상이 나타난다.

④ 인물의 태도가 달라지므로 사건의 배열도 역순행적이다.

Q13 **시간 제시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항 전날, 선장은 갑판을 살피며 말했다. “내일은 서쪽 항구에 닿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다시 밧줄을 점검했다. 글은 여기서 끝난다.

① 항구에 닿은 결과를 먼저 밝히고 밧줄 점검으로 되돌아간다.

② 도착을 예상할 뿐 다음 날의 실제 장면은 제시하지 않는다.

③ “내일”이라는 말 뒤부터 서쪽 항구에 도착한 장면으로 옮겨 간다.

④ 말을 마친 뒤 점검하므로 선장은 도착을 취소한 상태이다.

Q14 **회상이 나타났다는 판단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현재의 정원에서 미루는 빈 화분을 보았다. 십 년 전 봄, 할머니는 같은 화분에 씨를 묻었다. 어린 미루가 물을 쏟자 할머니는 웃으며 흙을 고르게 펴 주었다. 자동차 경적에 미루는 다시 지금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① 경적 소리를 듣는 인물이 있어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나타난다.

② 빈 화분이라는 사물이 등장하여 정원의 넓이가 제시된다.

③ 현재의 관찰 사이에 십 년 전 두 사람의 행동 장면이 펼쳐진다.

④ 한 공간에서 일이 이어지므로 사건의 시간도 같은 봄으로 유지된다.

Q15 **앞부분의 작은 구멍 설명이 하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준은 창고 문 옆의 작은 구멍을 가리키며 손을 넣으면 안쪽 빗장을 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열쇠가 부러지자 준은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 빗장을 밀고 문을 열었다.

① 준이 창고를 싫어한다는 마음을 우회하여 드러내는 대상이다.

② 뒤에 열쇠 없이 문을 여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복선이다.

③ 열쇠가 부러진 원인을 문 옆의 구멍 탓으로 밝히는 설명이다.

④ 문이 열린 뒤의 일을 정리하며 긴장을 낮추는 결말이다.

Q16 **제시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시된 부분] 은호는 탁자 위의 푸른 컵을 옮기고 계약서를 펼쳤다. “지난해에도 여기서 계약했지.” 그는 서명할 곳을 찾았다. 뒤의 이야기는 주어지지 않았다.

① 컵이 놓여 있다는 정보만으로 그 컵의 상징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

② 지난해 계약을 말하지만 그때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펼쳐지지는 않는다.

③ 푸른 컵은 뒤의 계약 파기를 준비하는 복선으로 확인된다.

④ 은호의 현재 행동은 컵을 옮기고 계약서를 살피는 과정이다.

이야기를 결합하는 방식 Q17~Q24

Q17 **이 작품을 단일 구성으로 볼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 줄거리] 윤재는 잃어버린 도장을 찾으려 시장 사람에게 묻고, 지나온 길을 되짚고, 끝내 배달 상자에서 도장을 발견한다. 세 과정은 모두 도장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① 세 장소를 거치므로 각 장소의 사건은 독립된 삽화로 묶인다.

② 묻기·되짚기·발견이 하나의 찾기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③ 도장 발견을 마지막에 두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구별된다.

④ 시장 사람과 배달 상자가 나오므로 두 줄거리가 나란히 전개된다.

Q18 **두 줄거리의 구성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줄거리는 언니가 오래된 극장을 지키려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다른 줄거리는 동생이 다른 도시에서 극단을 꾸리며 동료들과 겪는 갈등이다. 두 흐름은 번갈아 이어지다가 마지막 합동 공연에서 만난다.

① 같은 공연에서 만나므로 두 흐름의 모든 사건은 같은 날 벌어진다.

② 동생의 갈등은 극장 설득의 한 단계이므로 별도 흐름이 아니다.

③ 언니의 회상 속에 동생이 등장하므로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다.

④ 각각의 목표를 따라가던 두 흐름이 한 공연에서 연결된다.

Q19 **액자 구성의 외부(바깥) 이야기와 내부(안쪽) 이야기를 바르게 구별한 것은?**

소연은 야간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낡은 배지에 관해 묻는다. 승무원은 예전 폭설 때 마지막 승객을 찾아 나섰던 하루를 길게 들려준다. 이야기가 끝나자 소연은 배지를 다시 보며 승무원에게 고개를 숙인다.

① 외부와 내부는 같은 수색을 서로 다른 두 승무원이 전하는 장면이다.

② 외부는 소연의 어린 시절, 내부는 배지를 처음 받은 날의 경험이다.

③ 외부는 소연과 승무원의 만남, 내부는 승무원이 들려준 폭설의 하루이다.

④ 외부는 폭설 속 수색, 내부는 소연이 배지에 관해 묻는 현재의 장면이다.

Q20 구성상의 특징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하는 혼자 빈 수영장을 바라보다 지난해 경기에서 출발 신호를 놓친 순간을 떠올렸다. 글은 당시 도하의 동작을 보여 준 뒤, 다시 혼자 수영장 앞에 선 도하로 돌아온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 장면은 없다.

① 수영장이 두 번 나오므로 서로 다른 인물의 병렬식 구성이다.

② 과거와 현재의 도하가 모두 나오므로 두 중심인물의 복합 구성이다.

③ 현재로 돌아왔으므로 과거 장면은 사건 순서상 현재 뒤에 놓인다.

④ 회상은 드러나지만 이 정보만으로 액자 구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Q21 두 흐름을 나란히 배치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품은 1980년에 산촌에서 진료소를 여는 수연의 이야기와, 2020년에 도시에서 쉼터를 여는 태호의 이야기를 번갈아 제시한다. 두 인물은 서로 만나지 않지만, 모두 도움을 청한 사람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민한다.

① 다른 시대의 두 인물이 비슷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비교한다.

② 태호의 결정이 수연의 진료소 개설을 일으켰다는 인과를 밝힌다.

③ 수연이 태호에게 옛일을 들려주는 상황을 틀로 삼아 경험을 전달한다.

④ 두 인물이 같은 해에 만나 겪는 하나의 사건을 두 쪽에서 보여 준다.

Q22 이 작품의 구성을 설명하는 이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떠돌이 장사꾼 하진이 세 마을을 방문한다. 첫 마을에서는 거짓 장부를 밝혀내고, 둘째에서는 잃은 개를 찾아 주며, 셋째에서는 잔치를 준비한다. 각 마을의 사건은 그곳에서 마무리되고, 앞 사건의 해결이 다음 사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① 피카레스크식 구성

② 옴니버스식 구성

③ 액자 구성

④ 역순행적 구성

Q23 **여러 이야기를 묶는 기준에 초점을 둘 때 가장 적절한 설명은?**

서로 모르는 세 사람이 다른 시대와 도시에서 살고 있다. 각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완결된다. 작품은 그들이 낯선 사람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낯선 이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라는 공통 주제로 묶었다.

① 각 이야기가 완결되므로 작품 전체를 묶는 공통 의미는 없다.

② 공통 주제로 독립된 이야기를 묶는 옴니버스식 특징이 있다.

③ 손님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들려주는 액자 구성이다.

④ 같은 주인공이 도시를 옮겨 겪는 피카레스크식 특징이 있다.

Q24 **이 작품의 구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부 이야기에서 기자는 자매를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듣는다. 내부 이야기에서는 언니의 지난여름과 동생의 올해 봄이 번갈아 제시된다. 마지막에는 기자가 듣기를 마치고 기록장을 덮는 외부 장면으로 돌아온다.

① 안팎의 구조와 두 흐름의 나란한 배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 기자의 만남은 자매의 경험이 전달되는 외부 틀을 마련한다.

③ 내부에서 두 경험이 병렬되므로 두 경험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④ 기록장을 덮는 장면은 경험 이야기가 끝나고 외부로 돌아왔음을 보인다.

배경의 성격과 작용 Q25~Q32

Q25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늦겨울 새벽, 해진은 얼어붙은 산길을 따라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은 산 아래 읍내에 있었고 첫 차는 아직 오지 않았다.

① 늦겨울 새벽은 시간 조건이고 산길·읍내 우체국은 장소이다.

② 늦겨울은 인물의 심리이고 우체국으로 향함은 사회 제도이다.

③ 산길이 얼었으므로 작품의 정확한 연도와 지역 이름을 알 수 있다.

④ 첫 차가 오지 않았으므로 사건이 벌어지는 시각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Q26 자연적 배경이 사건에 작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름째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다. 밭에 물을 댈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남은 물의 사용 순서를 정하려고 모였다.

① 비가 오지 않는 장면은 인물의 선택과 떨어진 장식으로만 쓰인다.

② 저수지의 위치가 바뀌어 주민들이 새 마을로 이주하게 한다.

③ 가뭄 때문에 주민들이 물 배분 순서를 논의하게 된다.

④ 가뭄이 주민들의 합의를 끝내어 더 논의할 필요를 없앤다.

Q27 사회적 배경의 작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근거는?

이 도시에서는 집을 소유한 사람만 마을 대표로 출마할 수 있었다. 세입자인 수민은 규칙을 바꾸자는 청원을 내고 후보 등록도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소유 증명서가 없다며 후보 접수를 거절했다.

① 증명서가 없으므로 수민의 실제 거주 도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수민이 청원을 냈으므로 자연환경이 이동을 막았음이 드러난다.

③ 담당자가 수민을 만났으므로 두 사람의 옛 원한이 드러난다.

④ 재산 소유에 따른 출마 규칙이 수민의 참여를 제한한다.

Q28 **“한겨울”의 배경 성격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겨울의 강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였다. 인물들은 배를 띄우지 못해 강가에서 돌아섰다. 다른 시대·연도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① 자연환경과 관계되므로 사건의 시간 조건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② 계절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도 특정할 수 있다.

③ 계절을 알리고 얼어붙은 자연환경도 이해하게 한다.

④ 배를 띄우지 못하므로 이 도시의 법률이 항해를 금지한 것이다.

Q29 **소미의 행동을 낳는 심리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미는 전번 발표에서 비웃음을 산 기억 때문에 이번 발표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손을 내밀다가도 그날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① 발표 신청 마감이 지나 버려 접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② 과거 발표의 상처가 새로운 참여를 주저하게 한다.

③ 이전 발표의 성공 경험이 이번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

④ 주머니의 크기가 작아 신청서를 꺼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Q30 **상황적 배경과 행동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루 뒤 철거될 집에서 유리는 해가 지기 전까지 짐을 꺼내야 했다. 오래 머물며 추억을 떠올리고 싶었지만, 그는 상자에 꼭 필요한 물건부터 담았다.

① 철거 날짜를 바꾸었기 때문에 유리는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다.

② 추억이 떠오르지 않아 유리는 집에 남은 물건을 전부 버린다.

③ 해가 지는 자연 풍경을 감상하느라 유리는 짐 정리를 미룬다.

④ 퇴거의 마감 때문에 유리는 필요한 물건부터 골라 담는다.

Q31 **장면의 분위기와 인물의 감정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잔치가 끝난 마당에는 빈 접시만 남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아래 누구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우는 그 적막 속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겠네.”

① 마당에 말소리가 없으므로 서우도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

② 등불이 흔들리므로 서우는 앞으로 생길 위험을 예감하고 있다.

③ 마당은 적막하지만 서우는 혼자 쉬는 것을 홀가분해한다.

④ 서우가 웃으므로 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이어진다.

Q32 **배경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폭우가 내려 산길이 막혔다. 내일까지 약을 전해야 하는 현수는 초조해졌다. 마을의 규칙은 낯선 사람에게 창고 열쇠를 빌려주지 못하게 했다. 현수는 창고의 우비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① 창고 열쇠를 빌려주지 않는 규칙은 폭우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배경이다.

② 폭우와 막힌 산길은 현수의 이동을 제약하는 자연 조건이다.

③ 내일까지 약을 전해야 한다는 사정은 현수가 처한 마감 조건이다.

④ 초조함은 현수의 마음 상태이며 폭우라는 날씨와 구별된다.

Q33 이 장면에서 장갑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우는 서랍의 낡은 장갑을 꺼냈다. 장갑의 헤진 손끝을 만지자,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고치던 겨울이 떠올랐다. 연우는 장갑을 버리려던 봉투를 다시 접었다.

① 아버지가 지금 서랍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표지이다.

② 가족 간 소유권 다툼을 일으켜 갈등을 심화하는 직접 계기이다.

③ 아버지의 기억을 불러와 장갑을 대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④ 자전거를 고칠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로 입증하는 증거이다.

Q34 수첩이 하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민은 버스에서 주운 수첩의 첫 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수첩 주인은 감사 인사를 하며 태민을 작업실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나 함께 도자기를 빚었다.

① 작업실 주인과 태민의 오랜 원한을 풀어 주는 증거로 쓰인다.

② 두 사람이 이전부터 함께 작업해 왔다는 관계를 확인해 준다.

③ 주소를 찾게 해 두 사람의 만남과 다음 행동을 이어 준다.

④ 도자기를 망가뜨려 태민이 작업실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

Q35 메모와 갈등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형제는 같은 자물쇠의 열쇠를 서로 숨겼다고 의심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서 열쇠를 다른 서랍에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제는 열쇠를 찾고 서로 의심한 일을 사과했다.

① 열쇠 위치의 사실을 밝혀 형제의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

② 메모를 읽고도 사과가 없으므로 의심이 그대로 심화된다.

③ 열쇠를 찾는 실용적 용도만 있으며 형제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열쇠를 숨긴 사람이 형임을 밝혀 동생의 의심을 확정해 준다.

Q36 **연필의 의미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업 일지에는 연필이 세 차례 나온다. 첫날에는 치수를 적고, 다음 날에는 선을 긋고, 마지막 날에는 계산 결과를 기록한다. 연필에 대한 인물의 기억이나 특별한 평가는 제시되지 않는다.

① 작업 도구로 반복되지만 특정 상징을 확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② 마지막 날에도 쓰였으므로 뒤에 연필이 부러질 사건을 준비한 복선이다.

③ 계산에 사용되므로 인물과 동료 사이의 화해를 매개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세 번 등장했으므로 인물이 지켜 온 신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Q37 **차양의 변화가 드러내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집 앞만 가리던 작은 차양들을 떼어 공동 쉼터의 지붕에 이어 붙였다. 모양이 제각각인 조각 아래서 전에 다투던 이웃들도 함께 비를 피했다. 작품은 이 장면으로 끝난다.

① 조각의 모양이 다르므로 주민들이 협력을 포기한 결과를 드러낸다.

② 각자의 보호물을 함께 쓸 공간으로 바꾸는 협력의 가치를 드러낸다.

③ 지붕을 만들었으므로 모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었음을 보인다.

④ 비가 내리므로 인물들이 이웃을 향한 적의를 더 키우는 모습을 보인다.

Q38 **사다리의 기능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공동 사다리를 누가 먼저 쓸지 다투었다. 강풍으로 지붕이 벗겨지자 사람들은 사다리를 붙잡고 번갈아 올라 수리했다. 끝에는 사다리에 공동 사용 시간을 적어 두었다.

① 처음에는 추억을 부르지만 마지막에는 과거 기억을 지우는 역할을 한다.

② 지붕을 수리한 뒤 사라져 이웃들의 합의가 취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③ 사용 순서의 다툼 대상이었다가 공동 작업과 합의를 드러내게 된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막아 인물들을 서로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Q39 **방수포의 복선 기능과 주제 관련 기능을 구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인물은 찢어진 방수포를 꿰매 창고에 두었다. 뒤에 폭우가 오자 그 방수포로 이웃의 짐을 덮어 젖지 않게 했다. 이웃들은 방수포의 모서리를 함께 붙잡아 들뜨지 않게 했다. 마지막에는 서로 다른 실로 기운 방수포 아래 여러 집의 짐이 나란히 놓였다.

① 앞의 수선은 뒤의 보호를 준비하고 공동 사용은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② 여러 집의 짐이 있으므로 방수포가 훼손될 결말까지 미리 확정되어 있다.

③ 같은 물건이 반복되므로 수선과 폭우의 시간 순서는 뒤집혀 있다고 본다.

④ 앞의 수선이 뒤에 쓰였으므로 마지막 공동 사용에 별도 의미는 붙일 수 없다.

Q40 **배경·소재의 기능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시된 부분] 다리 공사 때문에 길을 돌아가던 예진은 길가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명찰을 주웠다. 명찰의 연락처로 주인을 만나 돌려주었다. 주인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후의 이야기는 주어지지 않았다.

① 다리 공사는 예진이 원래 길을 벗어나 걷게 된 조건이다.

② 명찰의 반환은 두 사람이 평생 우정을 지킨다는 작품의 주제를 확정한다.

③ 명찰의 연락처는 예진과 주인이 만나는 일을 이어 준다.

④ 길을 돌아간 사건과 명찰을 주운 사건은 제시된 이동 과정에서 연결된다.

Q41 **사건 순서와 서술 순서를 각각 기호로 쓰고, 구성의 이름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쓰세요.**

오늘 주원은 직접 고친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들었다. 석 달 전, 이웃은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를 주원에게 건넸다. 주원은 라디오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다가 선반에 올려 두었다. 어제 주원은 뒤판을 열고 끊어진 선을 찾아 이었다.

사건 카드

㉠ 주원이 끊어진 선을 고친다.

㉡ 주원이 고친 라디오로 음악을 듣는다.

㉢ 주원이 고장 난 라디오를 얻는다.

쓸 내용	답
사건 순서	( ) → ( ) → ( )
서술 순서	( ) → ( ) → ( )
구성의 이름	
그렇게 판단한 근거	

Q42 **앞 단서와 뒤 사건을 각각 쓰고, 앞 단서의 기능 이름과 두 사건의 연결을 설명하는 한 문장을 쓰세요.**

처음에 세나는 낡은 우산의 손잡이에 작은 손전등을 달아 두었다. 뒤에 골목 전체가 정전되자, 세나는 그 손전등으로 바닥의 깨진 유리를 비추며 사람들을 안내했다.

앞 단서	뒤 사건

기능의 이름: _____

한 문장 설명: _____

Q43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각각 쓰고, 구성 이름을 쓰세요.**

현재의 도서관에서 나는 오래된 책을 기증하러 온 사람에게 책에 얽힌 일을 물었다. 그는 어린 시절 책을 잃었다가 십 년 뒤 다시 찾은 과정을 들려주었다. 말을 다 듣고 나는 기증 신청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외부(바깥) 이야기

그 안에 포함된 내부(안쪽) 이야기

구성 이름: _____

Q44 **큰눈과 지도가 각각 사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문장씩 쓰세요.**

큰눈이 내려 버스가 끊기자 두 여행자는 마을 회관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다. 한 사람이 꺼낸 지도에 다른 사람이 아는 길이 표시되어 있어, 둘은 다음 날의 이동 방법을 함께 의논했다.

대상	사건에서 하는 역할
큰눈	
지도	

PART 3

종합 적용

자료 A 다시 적은 이름

Q45~Q48

낱말 풀이 편집: 글이나 자료를 목적에 맞게 골라 정리함. 대조: 둘 이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핌.

(가) 낭독회가 끝난 오늘 밤, 보람은 회관 문에 붙은 안내문을 바라보았다. 오전에 덧붙인 작은 종이에는 "이야기 수집·기록: 보람 / **편집**: 선우"라고 적혀 있었다. 바람에 들뜬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어제저녁부터 마음에 걸렸던 빈칸 하나는 채워져 있었다.

(나) 이야기는 사흘 전 오후로 돌아간다. 보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수첩에 적어 선우에게 건넸다. 선우는 낭독회에 맞게 분량을 줄이고 문장을 다듬기로 했다. 보람은 자신의 말을 덧붙인 곳과 마을 사람의 말을 적은 곳을 표시해 두었다. 선우가 "정리한 종이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묻자 보람은 "어떤 말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볼 수 있게 수첩도 가져갈게"라고 답했다.

(다) 어제저녁 도착한 안내문에는 선우의 이름만 있었다. 보람은 자신이 적어 온 말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서운했다. 선우는 처음에는 "읽을 글을 내가 정리했으니까"라고 말했다. 보람은 기록과 편집이 서로 다른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화는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다음 날 오후면 낭독회가 열리므로 안내문을 고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라) 오늘 오전, 보람은 수첩과 편집된 원고를 회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둘은 표시된 문장들을 한 줄씩 **대조**했다. 선우는 보람이 모아 온 말과 자신이 손본 부분을 따로 짚어 보다가 "두 일을 내 이름 하나로 적었구나"라고 말했다. 둘은 각자의 역할을 함께 밝히기로 합의하고 안내문마다 이름과 역할을 덧붙였다. 선우가 낭독회를 열며 그 과정을 참석자에게 설명했을 때, 보람은 뒤쪽 의자에서 고개를 들었다.

(마) 다시 오늘 밤이다. 보람은 정리된 원고를 선우에게 돌려주고 수첩은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선우는 "다음 기록도 같이 할까?"라고 물었다. 보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기 전 두 사람은 남은 의자를 함께 포갰다. 다음 일을 함께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채였다.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Q45 **자료 A에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시간 순서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늘 밤 다음 작업에 합의한 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낭독회를 준비한다.

② 오늘 오전 역할을 고친 뒤 어제의 안내문이 도착하여 다시 갈등이 시작된다.

③ 오늘 밤 안내문 확인 뒤 처음 기록을 모으고, 그다음 날 낭독회를 연다.

④ 기록 전달→안내문 확인→역할 수정→낭독회 뒤 정리 순서이다.

Q46 **(다)에서 (라)로 이어질 때 갈등의 결정적 전환을 만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첩과 편집 원고를 대조하고 두 사람의 역할을 함께 밝힌다.

② 보람이 서운함을 참고 선우의 이름만 적힌 안내문을 그대로 두기로 한다.

③ 선우가 다음 작업을 제안하여 보람에게 수첩을 영구히 넘겨받는다.

④ 낭독회 날짜가 미뤄져 두 사람이 대조 없이 각자 작업을 마무리한다.

Q47 **(나)의 “수첩도 가져갈게”라는 말이 뒤 사건과 맺는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뒤에서 기록과 편집의 역할을 확인할 자료를 마련해 두는 복선이다.

② 이야기와 무관한 물건을 소개하여 뒤 사건과의 연결을 끊는 말이다.

③ 보람이 기록을 폐기해 역할 확인을 포기할 것임을 미리 알려 준다.

④ 선우가 낭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미리 설명하는 단서이다.

Q48 **(마)의 결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함께 의자를 포갰으므로 다음 작업의 역할 분담에도 이미 합의했다.

② 역할 표기는 고쳤지만 다음 협업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③ 수첩을 가방에 넣었으므로 선우가 편집한 원고도 함께 가져갔다.

④ 보람이 답하지 않았으므로 수정했던 이름표를 다시 떼기로 했다.

자료 B 단추를 맡기는 사람

Q49~Q52

낱말 풀이 수선: 낡거나 망가진 곳을 고침. 견습: 일을 배우며 익힘.

(가) **견습 수선**공인 나는 저녁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낯선 노인이 작은 단추를 내밀었다. "이 단추를 외투에 달아 주겠니?" 나는 새 물건을 팔지도 않고 손님도 드문 가게에서, 이렇게 작은 일까지 맡아야 하는지 망설였다. 노인은 내 표정을 보았는지 의자에 앉아 단추에 얽힌 일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 "어릴 때 나는 길을 잃고 어느 수선 가게 앞에 서 있었지.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바람이 자꾸 옷 속으로 들어왔어. 주인은 내 말을 듣고 단추부터 달아 주었어. 어디서 헤어졌느냐고 묻더니, 내가 기다리는 동안 문밖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단다." 노인의 말 속에서 어린아이와 수선 가게의 하루가 펼쳐졌다.

(다) 노인은 그때 주인이 외투 안쪽에 넣어 준 작은 천 조각 이야기도 했다. 천에는 가게의 골목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족을 찾은 뒤에도 길을 잃으면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어 준 것이었다. 아이는 외투가 작아질 때까지 천을 꺼내 보곤 했다. 외투가 작아져 더 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 천과 단추 하나는 따로 간직했다.

(라) "커서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 새 동네가 낯설 때면 이 단추를 만져 보았지. 누군가 내가 있는 곳을 물어봐 주던 하루가 떠올랐거든." 노인은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의 엄지가 단추의 닳은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마) 나는 가게의 시계를 보고도 셔터를 내리지 않았다. 노인이 지금 입고 있는 외투를 받아, 예전 단추가 잘 맞을 자리를 함께 골랐다. "다 달면 입어 보고 가세요." 내가 말하자 노인은 의자를 조금 당겼다. 단추를 다는 동안, 나는 작은 일의 크기를 무엇으로 재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Q49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구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린아이의 길 찾기가 외부이고 견습공의 수선이 그 안에 들어 있다.

② 현재 가게의 의뢰·응대가 외부이고 노인이 들려준 경험이 내부이다.

③ 현재의 노인이 외부 인물이고 과거의 노인은 별개의 주인공이다.

④ 단추가 외부이고 외투가 내부이므로 물건의 포함 관계가 액자이다.

Q50 **내부 이야기의 시간 배열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린 시절의 도움에서 성장 뒤 단추를 간직한 경험으로 순행한다.

② 현재의 의뢰부터 어린 시절까지 매 단락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

③ 액자 안의 이야기이므로 순행과 역순행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④ 가족 재회가 길을 잃은 일보다 먼저 제시되어 역순행을 이룬다.

Q51 **단추의 기능을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에서 함께 읽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노인에게 돌봄의 기억을 불러오며 현재의 의뢰와 경험 전달을 이어 준다.

② 잃은 길을 정확히 표시하는 지도이며 노인이 이사를 멈추게 하는 수단이다.

③ 노인에게 가게 주인의 이름을 증명해 주며 견습공의 가족 관계를 밝힌다.

④ 과거의 도움을 지우게 하는 물건이며 현재 수선 의뢰를 거절하게 만든다.

Q52 **외부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투를 받아 자리를 고르는 행동은 내부 이야기를 들은 뒤의 반응이다.

② 작품은 도움의 의미를 과거 경험과 현재 행동의 연결 속에서 드러낸다.

③ 견습공은 단추가 작은 일이란 처음 판단을 고수하며 노인을 돌려보낸다.

④ 노인의 경험은 현재의 견습공이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자료 C 잠시 머무는 자리 Q53~Q56

낱말 풀이 진열: 물건을 보이도록 벌여 놓음. 임시: 정식으로 정하기 전 잠시 씀.

(가) 삼십 년 전, 섬에서 잡화점을 하던 다정은 저녁마다 창고 열쇠를 혼자 챙겼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흐트러뜨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강풍으로 마지막 배가 뜨지 못했다. 부두에 남은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머물 곳을 찾았다. 다정은 창고 안의 빈 자리를 떠올렸지만 열쇠를 내주지 못했다.

(나) 어둠이 내리자 다정은 직접 창고 문을 열었다. **진열**을 기다리던 물건을 벽 쪽으로 모으고, 사람들에게 비어 있는 가운데 자리를 내주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떠난 뒤 물건은 그대로였고, 바닥에는 정리된 이불만 남아 있었다. 다정은 이후 배가 묶이는 밤이면 창고를 열었다. 혼자 쥐던 열쇠를 가게 벽의 고리에 걸어 두며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렸다.

(다) 이야기는 올해 봄의 도시로 옮겨 간다. 도서관의 방을 관리하는 규호는 "이 방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을 매일 세웠다. 사흘 뒤 **임시** 숙소를 비워야 하는 한 가족이 찾아왔다. 가족은 숙소를 나온 뒤 다음 거처로 이동하기 전까지 몇 시간만 방에서 기다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회원증이 없었다. 규호는 빈 방을 보고도 안내판을 다시 가리켰다.

(라) 가족이 돌아간 뒤에도 규호는 한동안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날 회의에서 그는 비어 있는 방을 시간제로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도서관 운영진은 낮 시간의 일부를 누구나 머무는 시간으로 정했다. 사흘 뒤 그 가족은 열린 방에서 다음 이동을 기다렸다. 규호는 바뀐 안내판 아래에 방 열쇠를 걸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앉을 자리를 알려 주었다.

(마) 오래전 섬의 창고에서 다정은 자리를 내어 주려고 물건을 한쪽으로 밀었다. 올해 봄 도시의 방에서 규호는 방문객을 위해 의자를 당겼다. 다정의 고리에는 오래 써서 반질해진 열쇠가, 규호의 안내판 아래에는 도서관 이름표가 달린 열쇠가 걸려 있었다. 두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잠시 짐을 내려놓았다.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Q53 두 이야기의 결합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규호가 다정의 말을 듣는 틀 안에 두 사람의 과거가 포함된 액자 구성이다.

② 다정 한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 도시로 이동하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③ 한날의 섬과 도시를 교차해 같은 폭풍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④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 두 인물의 선택을 비교하게 한다.

Q54 **두 인물 앞에 놓인 배경의 조건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섬의 강풍과 도시의 회원 규칙은 둘 다 날씨 때문에 생긴 자연 조건이다.

② 섬의 강풍은 이동을 막고 도시의 회원 규칙은 방 사용을 제한한다.

③ 두 장소 모두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인물들은 이동할 수 있는데 머무르기를 고른다.

④ 도시의 가족은 방이 없어 기다리지 못하고 섬 사람들은 회원증이 없어 못 잔다.

Q55 **두 장소의 열쇠가 드러내는 공통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문객이 사라진 뒤 모든 공간을 폐쇄하는 결정을 상징한다.

② 두 사람이 열쇠를 잃어버려 공간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같은 열쇠가 시대를 건너 전해져 두 인물의 혈연을 밝히는 증거가 된다.

④ 혼자 관리하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주는 선택을 구체화한다.

Q56 **제시된 사건의 연결 범위를 바르게 판단한 것은?**

① 마지막 장면이 나란히 놓였으므로 다정과 규호가 같은 공간에서 만났다고 본다.

② 공간을 열어 주었으므로 그 가족의 앞으로 살 집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두 열쇠가 같은 기능을 하므로 다정이 규호에게 자기 열쇠를 건넨 셈이다.

④ 선택은 비교되지만 다정의 행동이 규호에게 전달된 근거는 없다.

자료 D 한 대의 손수레

Q57~Q60

낱말 풀이 공동: 둘 이상이 함께함. 걸쇠: 물건이 열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걸어 두는 장치.

(가) 장터의 작은 가게 두 곳은 옆판을 접을 수 있는 네 바퀴 손수레 한 대를 함께 샀다. 두 주인인 해린과 규선은 쓸 때마다 누구의 차례인지를 두고 다투었다. 장터에는 낮 장사가 끝나기 전까지 입구에 짐을 쌓아 두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가게는 안쪽 창고의 짐을 입구에 미리 내놓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손수레로 가게까지 바로 실어 날라야 했다. 해린은 손수레를 쓰지 못하면 안쪽 창고의 짐을 제때 옮기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규선도 같은 사정을 내세웠다.

(나) 비가 이어지던 오후, 해린은 수레를 쓰려고 옆판을 세우다가 **걸쇠**가 자꾸 풀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창고에 있던 짧은 끈으로 옆판을 수레의 고정 틀에 단단히 묶었다. 규선은 그 모습을 보고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전 자신의 짐이 밀려났던 일이 떠올라, 먼저 말을 걸면 또 자기 차례를 빼앗길 것 같았다.

(다) 잠시 뒤 빗물이 두 창고의 문턱까지 흘러들었다. 두 사람은 젖기 쉬운 종이 상자부터 위쪽 **공동** 보관실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수레에 누구의 상자를 먼저 실을지를 두고 다시 맞섰다.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규선은 자기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해린의 가장 낮은 선반에 있던 상자를 수레에 함께 실었다. “낮은 데 있는 것부터 옮겨요.” 해린은 수레의 손잡이를 잡았고, 규선은 옆에서 상자를 받쳤다.

(라) 둘은 길의 홈을 지날 때마다 수레를 함께 붙잡았다. 옆판 걸쇠가 한 번 풀렸지만 앞서 묶은 끈이 판을 잡아 주어 상자가 옆으로 밀려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상자를 공동 보관실로 올리고 나서야 두 사람은 젖은 창고로 돌아왔다. 옮긴 상자들은 무사했지만 창고 바닥은 다시 손봐야 했다.

(마) 다음 날 두 사람은 수레에 사용 시간을 적은 판을 달았다. 갑자기 함께 써야 할 때는 누구의 짐인가보다 무엇이 먼저 옮겨져야 하는지를 의논하기로 했다. 규선은 해린에게 끈을 묶어 준 일을 고맙다고 말했다. 비는 그쳤으나 창고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수레를 사이에 두고 바닥을 고칠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학습용 창작 지문입니다.

Q57 규선의 태도와 배경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전 손해의 기억이 규선의 경계심을 낳고 비와 장터 규칙도 행동 조건이 된다.

② 입구에 짐을 쌓지 못하는 규칙은 비가 그치면 사라지는 자연적 배경이다.

③ 규선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까닭은 해린이 끈을 묶는 모습을 못 보았기 때문이다.

④ 비가 내리므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를 믿고 다툼 없이 행동한다.

Q58 **(다)에서 갈등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규선이 자기 상자를 내리고 낮은 선반의 상자를 먼저 싣는다.

② 두 사람이 장터 규칙을 없애 입구에 짐을 쌓아 두기로 합의한다.

③ 해린이 규선의 상자를 버리고 자기 짐만 먼저 공동 보관실로 옮긴다.

④ 비가 멎자 두 사람은 수레를 접고 별도의 운반을 포기한다.

Q59 **(나)의 끈과 (라)의 사건을 연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같은 끈이 반복되므로 두 사람의 수리 비용 문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② 끈이 물을 막아 창고 바닥이 젖지 않았다는 결과를 미리 설명한다.

③ 앞서 옆판을 묶은 행동이 뒤에 상자가 떨어지지 않는 일을 준비한다.

④ 끈을 묶어 둔 일이 두 사람이 수레를 처음 사게 된 원인임을 밝힌다.

Q60 **(마)의 결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선의 감사는 끈을 묶는 모습을 보고도 말하지 않던 태도와 대비된다.

② 비가 그쳤다는 자연 조건의 변화와 창고의 복구 완료는 같은 사실이 아니다.

③ 수레는 다툼의 대상에서 공동 작업과 사용 합의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달라진다.

④ 공동 사용에 합의했으므로 창고 복구와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었다.

정답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01	④	Q21	①	Q41	해설 참조
Q02	③	Q22	①	Q42	해설 참조
Q03	④	Q23	②	Q43	해설 참조
Q04	③	Q24	③	Q44	해설 참조
Q05	②	Q25	①	Q45	④
Q06	④	Q26	③	Q46	①
Q07	①	Q27	④	Q47	①
Q08	②	Q28	③	Q48	②
Q09	④	Q29	②	Q49	②
Q10	②	Q30	④	Q50	①
Q11	④	Q31	③	Q51	①
Q12	②	Q32	①	Q52	③
Q13	②	Q33	③	Q53	④
Q14	③	Q34	③	Q54	②
Q15	②	Q35	①	Q55	④
Q16	③	Q36	①	Q56	④
Q17	②	Q37	②	Q57	①
Q18	④	Q38	③	Q58	①
Q19	③	Q39	①	Q59	③
Q20	④	Q40	②	Q60	④

정답 정답과 해설

Q01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그 뒤 의자를 만들던 시절로 돌아가

판단 결과를 먼저 보여 주고 그 이유를 뒤에 알게 합니다.

× ① **제작부터 폐기까지 차례로 보여 주어 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제작부터 차례대로 보여 준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작품은 의자를 태우는 결과부터 보여 주고 제작 시절로 돌아갑니다.

× ②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제작 과정을 나란히 놓아 선택을 비교한다.**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제작 과정을 비교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나래가 의자를 태운 일과 그보다 앞선 과정이 이어집니다.

× ③ **의자 제작 장면을 생략하여 약속이 거짓인지 독자가 판단하게 한다.**
제작 장면을 생략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뒤에서 의자를 만들던 시절과 약속이 거짓임을 알게 된 과정을 들려줍니다.

○ ④ **의자를 태운 이유를 궁금하게 한 뒤 앞선 사건으로 설명한다.**
의자를 태우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과거가 뒤에 나옵니다. 시간 순서를 바꾼 구성이 궁금증을 만들고 이유를 뒤늦게 밝힙니다.

다시 볼 설명 E01 , E08

Q02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산골 마을에 온 새 우편 배달원과 끊어진 다리를 소개한다.

판단 인물·배경을 소개하고 배달 사건의 실마리를 마련합니다.

× ① **배달 뒤의 생활을 보여 주며 갈등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배달 뒤의 생활을 정리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지문은 첫 편지를 받아 배달을 시작하려는 상황을 보여 줍니다.

× ②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해결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지문에는 아직 강을 건널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 **③ 새 인물의 처지와 배달을 시작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새 배달원과 끊어진 다리를 소개하고 첫 편지를 건넵니다. 인물·배경과 사건의 실마리를 마련하므로 발단의 기능을 합니다.

× **④ 대립이 가장 격해진 순간에 인물의 결단을 보여 주고 있다.**
결정적 결단을 보여 준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배달원은 아직 강을 건널 방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2

Q03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오늘 합의하지 못하면 작업장이 닫힐 처지가 되어 대립이 격해진다.

판단 ㉢은 결정의 압박, ㉣은 결정적 합의를 보여 줍니다.

× **① ㉢은 사건의 마무리이고 ㉣은 앞선 일로 돌아가는 회상이다.**
㉢을 사건의 마무리로, ㉣을 회상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에서는 문제가 더 심해지고 ㉣에서 다음 행동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 **② ㉢은 배경 소개에 머물고 ㉣에서 두 모임의 대립이 시작된다.**
㉢이 소개에 머물고 ㉣에서 대립이 시작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두 모임은 이미 ㉡에서 맞서며 ㉢에서 대립이 격해집니다.

× **③ ㉢은 절정에서 갈등을 끝내고 ㉣은 그 이후 생활을 보여 준다.**
㉢에서 갈등이 끝났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을 지나 ㉣에서 서명으로 폐쇄를 막습니다.

○ **④ ㉢은 위기를 높이고 ㉣은 결정적 합의를 이루는 절정이다.**
㉢에서는 폐쇄가 다가와 선택의 압박이 커지고, ㉣에서는 서명으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각각 위기와 절정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2 , E03

Q04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편지 이야기가 나올 때면 둘은 여전히 서로를 탓했다.

판단 담장 경계의 합의와 편지 문제의 미해결을 나눕니다.

× **① 결말에 대립이 남았으므로 이 부분은 발단으로 보아야 한다.**
갈등이 남으면 발단이라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경계 합의 뒤의 결과를 보여 주므로 남은 문제가 있어도 결말일 수 있습니다.

× **② 함께 말뚝을 박았으므로 편지에 대한 사과도 이루어진 셈이다.**
말뚝을 함께 박은 일을 편지에 대한 사과로 보는 것이 틀렸습니다. 편지 이야기가 나오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탓합니다.

○ **③ 경계는 합의했지만 편지로 생긴 관계 문제는 남아 있다.**
경계는 합의해 말뚝을 박았지만 편지 문제에서는 서로를 탓합니다. 결말에서 해결된 문제와 남은 갈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 **④ 편지 문제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경계에 대한 합의도 취소되었다.**
경계 합의까지 취소되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편지 문제와 별개로 정한 경계선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2 , E05

Q05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하람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중얼거렸다.

판단 [가]의 혼잣말과 [나]의 긴 기간에 걸친 사건 압축을 각각 확인합니다.

× **① [가]는 대화로 친구의 반응을, [나]는 묘사로 작업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가]를 대화, [나]를 묘사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가]에는 말을 주고받는 상대가 없고 [나]는 작업장 모습보다 여러 일의 경과를 전합니다.

○ **② [가]는 독백으로 고민을, [나]는 요약으로 일의 경과를 드러낸다.**
[가]에서는 하람이 혼자 중얼거리며 고민을 드러내고, [나]에서는 한 달의 활동과 여름 끝의 결과를 압축합니다. 각각 독백과 요약입니다.

× **③ [가]는 묘사로 복도의 모양을, [나]는 대화로 수리 방법을 알려 준다.**
복도 모양과 수리 방법을 보여 준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가]는 혼잣말이 중심이고 [나]에는 수리 방법을 묻고 답하는 대화가 없습니다.

× **④ [가]는 요약으로 지난 결과를, [나]는 독백으로 인물의 속마음을 전한다.**
두 방식의 판단이 뒤바뀌었습니다. [가]는 현재 고민을 드러내는 독백이고 [나]는 여러 사건을 압축한 요약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4

Q06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어젯밤에 이 안내문이 붙었어.” 서연이 접힌 종이를 가리켰다.

판단 두 사람의 대화가 닫힌 가게에 관한 사건의 실마리를 드러냅니다.

× **① 묘사를 통해 가게 안의 물건 배치와 넓이를 상세히 보여 준다.**
가게 안의 배치와 넓이를 상세히 보여 준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문 앞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 **② 독백을 통해 가게 주인의 결심과 속마음을 직접 드러낸다.**
가게 주인의 속마음을 직접 드러낸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도윤과 서연이며 주인의 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 **③ 요약을 통해 가게가 운영된 여러 해의 과정을 압축한다.**
여러 해의 운영 과정을 압축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안내문에 관해 말을 주고받는 짧은 장면입니다.

○ **④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확인하는 가게의 변화를 드러낸다.**
도윤과 서연이 말을 주고받으며 가게를 비운다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대화가 변화된 상황과 사건의 실마리를 드러냅니다.

다시 볼 설명 E04

Q07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어떤 말을 적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판단 서두는 골목을 감각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답장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① 서두는 감각적 묘사이고 끝에는 답장 내용이 미정이다.**
서두는 냄새와 물방울로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끝에서는 답장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이후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열린 결말을 보입니다.

× **② 서두는 오래된 사건을 요약하고 끝은 답장을 받은 결과를 제시한다.**
오래된 사건의 요약과 답장을 받은 결과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처음은 골목의 모습이며 끝에서도 쓸 말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 **③ 서두는 골목의 소음을 강조하고 끝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소음을 강조하고 화해를 확정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냄새·물방울이 제시되고 답장을 쓰려는 행동만 나옵니다.

× **④ 서두는 인물의 문답을 제시하고 끝은 상대의 답변까지 보여 준다.**
문답과 상대의 답변이 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서두에는 대화가 없고 마지막에는 예서가 쓸 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4 , E05

Q08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빈 의자에 놓인 떠난 이웃의 이름표

판단 갈등 해결 뒤에도 떠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 **① 몇 달 뒤의 식사는 앞선 결정 이후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 준다.**
몇 달 뒤에 주민들이 마당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앞선 결정 이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결말 장면입니다.

× **② 매각 요구가 철회되었으므로 떠난 이웃을 떠올릴 여운도 사라졌다.**
매각 요구의 철회가 여운까지 없앤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빈 의자와 이름표는 자리에 없는 이웃을 생각하게 하므로 갈등 해결 뒤에도 여운이 남을 수 있습니다.

○ **③ 표결은 매각을 둘러싼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표결 뒤에 매각 요구가 철회됩니다. 표결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의 계기입니다.

○ **④ 빈 의자와 이름표는 자리에 없는 이웃을 독자가 생각하게 한다.**
떠난 이웃의 이름표가 빈 의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재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며 결말에 여운을 남깁니다.

다시 볼 설명 E02 , E03 , E05

Q09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2월에 혜린은 낡은 극장을 빌렸다.

판단 2월 대여, 5월 수리 완료, 6월 공연입니다.

× ① ㉠ → ㉡ → ㉢
㉠을 맨 앞에 둔 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작품에 나온 차례이며 실제 사건은 2월의 대여부터 시작합니다.

× ② ㉢ → ㉡ → ㉠
5월의 수리(㉢)를 2월의 대여(㉡)보다 앞에 놓은 것이 틀렸습니다. 대여한 뒤 수리를 마칩니다.

× ③ ㉡ → ㉠ → ㉢
6월 공연(㉠)을 5월 수리(㉢)보다 앞에 놓은 것이 틀렸습니다. 수리 완료 뒤 공연을 엽니다.

○ **④ ㉡ → ㉢ → ㉠**
2월에 빌리고 5월에 수리를 마친 뒤 6월에 공연합니다. 사건 순서는 ㉡→㉢→㉠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6

Q10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노인이 된 영호는 서랍에서 붉은 배지를 꺼냈다.

판단 처음 배지를 꺼낸 장면(㉢), 어린 시절 배지를 받은 장면(㉠), 다시 현재에 손자에게 건넨 장면(㉡)의 차례로 읽게 됩니다.

× ① ㉠ → ㉢ → ㉡
서술 순서를 사건 순서와 혼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지를 받은 ㉠이 실제로 먼저 일어났지만, 글의 첫 장면은 노년의 영호가 배지를 꺼내는 ㉢입니다.

○ ② ㉢ → ㉠ → ㉡
글은 배지를 꺼냄(㉢), 어린 시절 받음(㉠), 손자에게 건넴(㉡) 순서로 장면을 보여 줍니다. 독자가 만나는 이 차례가 서술 순서입니다.

× ③ ㉠ → ㉡ → ㉢
사건 카드의 기호 순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 틀렸습니다. 글에서는 ㉢이 먼저 나오고 ㉠·㉡이 이어집니다.

× ④ ㉡ → ㉢ → ㉠
손자에게 건네는 ㉡을 맨 앞에 둔 것이 틀렸습니다. 그 장면은 과거를 떠올린 뒤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 때 나옵니다.

다시 볼 설명 E06 , E08

Q11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저녁이 되자 도구를 씻어 창고에 넣었다.

판단 과거형으로 쓰였어도 아침·낮·저녁 순서입니다.

× ① **아침과 저녁의 일이 서로 다른 인물의 흐름으로 병렬된다.**
서로 다른 인물의 병렬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같은 인물이 아침·낮·저녁에 한 일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 ② **“-었다”가 반복되므로 현재에서 과거로 거듭 회상한다.**
과거형이 반복되면 거듭 회상한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현재 장면에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 ③ **도구를 씻는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텃밭 일을 뒤에 밝힌다.**
도구를 씻는 결과를 먼저 제시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 행동은 저녁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 **④ 과거의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행적으로 제시한다.**
아침→낮→저녁 순서 그대로 제시되므로 순행적 구성입니다. “-었다”는 지난 일이라는 표시일 뿐 사건 순서를 뒤집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7 , E09

Q12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그 뒤에도 지호는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고치는 태도를 이어 갔다.

판단 시간은 순행하고 책임에 대한 성격·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 **① 순행적으로 제시되므로 인물의 책임 태도는 유지된다고 본다.**
순행하면 책임 태도도 유지된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못을 미루었지만 나중에는 책임을 인정하고 실수를 고칩니다.

○ **② 시간 배열은 평면적 구성이며 인물의 책임 태도는 변화한다.**
어린 시절에서 십 년 뒤,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므로 평면적 구성입니다. 그 사이 책임 태도가 달라져 순행적 구성과 인물 변화가 함께 성립합니다.

× **③ 십 년을 건너뛰었으므로 과거로 돌아가는 회상이 나타난다.**
십 년을 건너뛴 일을 과거로 돌아간 회상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이전보다 나중의 시점으로 이동했습니다.

× **④ 인물의 태도가 달라지므로 사건의 배열도 역순행적이다.**
태도 변화가 역순행을 뜻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성격과 달리 시간 배열은 어린 시절부터 이후로 이어집니다.

다시 볼 설명 E07 , E15

Q13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말을 마친 그는 다시 밧줄을 점검했다.

판단 미래의 계획을 말하지만 제시된 장면은 출항 전날에 머뭅니다.

× **① 항구에 닿은 결과를 먼저 밝히고 밧줄 점검으로 되돌아간다.**
도착 결과를 먼저 제시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선장이 앞으로 도착하리라고 말했을 뿐 실제 도착 장면은 없습니다.

○ **② 도착을 예상할 뿐 다음 날의 실제 장면은 제시하지 않는다.**
도착을 말한 뒤에도 출항 전날의 밧줄 점검이 이어집니다. 미래 예상과 실제 미래 장면으로의 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③ “내일”이라는 말 뒤부터 서쪽 항구에 도착한 장면으로 옮겨 간다.**
“내일” 뒤부터 실제 도착 장면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발언 안의 예상이며 선장은 여전히 출항 전날 갑판을 점검합니다.

× **④ 말을 마친 뒤 점검하므로 선장은 도착을 취소한 상태이다.**
도착을 취소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밧줄을 다시 점검했다는 행동만 제시됩니다.

다시 볼 설명 E09

Q14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어린 미루가 물을 쏟자 할머니는 웃으며 흙을 고르게 펴 주었다.

판단 현재 사이에 과거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 장면이 펼쳐집니다.

× **① 경적 소리를 듣는 인물이 있어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나타난다.**
경적을 대화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경적은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아니며 과거 재현의 근거도 아닙니다.

× **② 빈 화분이라는 사물이 등장하여 정원의 넓이가 제시된다.**
화분으로 정원의 넓이가 제시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회상은 현재 사이에 십 년 전의 행동이 펼쳐지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 **③ 현재의 관찰 사이에 십 년 전 두 사람의 행동 장면이 펼쳐진다.**
현재의 관찰 사이에 할머니와 어린 미루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과거 장면을 펼친 뒤 현재로 돌아오므로 회상입니다.

× **④ 한 공간에서 일이 이어지므로 사건의 시간도 같은 봄으로 유지된다.**
한 공간이면 시간도 같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같은 정원이어도 현재와 십 년 전 봄은 다른 시점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8 , E09

Q15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 빗장을 밀고 문을 열었다.

판단 앞서 설명한 구조가 뒤의 문 열기를 준비합니다.

× **① 준이 창고를 싫어한다는 마음을 우회하여 드러내는 대상이다.**
창고를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작은 구멍은 뒤에서 빗장을 밀어 문을 여는 데 쓰입니다.

○ **② 뒤에 열쇠 없이 문을 여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복선이다.**
앞에서 구멍의 용도를 알려 주고 뒤에서 그 방법으로 문을 엽니다. 앞 단서가 뒤 사건을 준비하는 복선입니다.

× **③ 열쇠가 부러진 원인을 문 옆의 구멍 탓으로 밝히는 설명이다.**
구멍이 열쇠를 부러뜨렸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구멍은 파손 원인이 아니라 열쇠 없이 문을 여는 수단입니다.

× **④ 문이 열린 뒤의 일을 정리하며 긴장을 낮추는 결말이다.**
문을 연 뒤의 결말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작은 구멍 설명은 그보다 앞에서 뒤의 문 열기를 준비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0 , E22

Q16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뒤의 이야기는 주어지지 않았다.

판단 컵의 복선 기능을 확인할 뒤 사건이 없습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 **① 컵이 놓여 있다는 정보만으로 그 컵의 상징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
푸른 컵을 다른 의미와 이어 주는 맥락이 없습니다. 소재의 등장만으로 특정한 상징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② 지난해 계약을 말하지만 그때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펼쳐지지는 않는다.**
지난해 계약을 말한 뒤 바로 현재 서명할 곳을 찾습니다. 과거 정보는 언급하지만 과거 장면을 구체적으로 펼치지는 않습니다.

× **③ 푸른 컵은 뒤의 계약 파기를 준비하는 복선으로 확인된다.**
계약 파기의 복선으로 확인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뒤에 계약이 파기되는지조차 주어지지 않아 컵과 그 사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④ 은호의 현재 행동은 컵을 옮기고 계약서를 살피는 과정이다.**
은호가 컵을 옮기고 계약서를 펼친 뒤 서명할 곳을 찾습니다. 제시된 현재 행동의 흐름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9 , E10

Q17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세 과정은 모두 도장을 찾으려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판단 여러 행동이 하나의 중심 목표·줄거리에 속합니다.

× **① 세 장소를 거치므로 각 장소의 사건은 독립된 삽화로 묶인다.**
장소가 다르면 독립된 삽화라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세 과정은 모두 잃은 도장을 찾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됩니다.

○ **② 묻기·되짚기·발견이 하나의 찾기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묻기·되짚기·발견이 하나의 도장 찾기 과정입니다. 중심 줄거리가 하나이므로 단일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도장 발견을 마지막에 두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구별된다.**
발견이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액자의 근거로 삼은 것이 틀렸습니다. 외부에서 내부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조는 없습니다.

× **④ 시장 사람과 배달 상자가 나오므로 두 줄거리가 나란히 전개된다.**
사람과 상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두 줄거리라고 본 것이 틀렸습니다. 두 대상 모두 같은 도장 찾기 과정에 속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1

Q18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두 흐름은 번갈아 이어지다가 마지막 합동 공연에서 만난다.

판단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두 흐름을 연결한 복합 구성입니다.

× **① 같은 공연에서 만나므로 두 흐름의 모든 사건은 같은 날 벌어진다.**
모든 사건이 같은 날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 공연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앞선 사건의 날짜까지 같게 하지 않습니다.

× **② 동생의 갈등은 극장 설득의 한 단계이므로 별도 흐름이 아니다.**
동생의 갈등을 언니 줄거리의 한 단계로만 본 것이 틀렸습니다. 동생은 다른 도시에서 극단을 꾸리며 별도의 갈등을 겪습니다.

× **③ 언니의 회상 속에 동생이 등장하므로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다.**
언니의 회상 속 이야기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두 흐름을 번갈아 보여 줄 뿐 누군가 내부 이야기를 들려주는 틀은 없습니다.

○ **④ 각각의 목표를 따라가던 두 흐름이 한 공연에서 연결된다.**
언니의 극장 지키기와 동생의 극단 꾸리기가 따로 전개되다가 합동 공연에서 만납니다. 두 줄거리를 연결한 복합 구성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1 , E13

Q19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이야기가 끝나자 소연은 배지를 다시 보며 승무원에게 고개를 숙인다.

판단 열차의 문답과 반응이 외부, 승무원이 들려준 하루가 내부입니다.

× **① 외부와 내부는 같은 수색을 서로 다른 두 승무원이 전하는 장면이다.**
두 승무원이 같은 수색을 전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한 승무원이 소연에게 자신의 폭설 경험을 들려줍니다.

× **② 외부는 소연의 어린 시절, 내부는 배지를 처음 받은 날의 경험이다.**
소연의 어린 시절과 배지를 처음 받은 날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열차의 만남과 승무원의 수색 경험이 제시됩니다.

○ **③ 외부는 소연과 승무원의 만남, 내부는 승무원이 들려준 폭설의 하루이다.**
현재 열차에서 소연이 경험을 듣고 반응하는 일이 외부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승무원의 폭설 경험이 포함되므로 액자 구성의 안팎을 바르게 나누었습니다.

× **④ 외부는 폭설 속 수색, 내부는 소연이 배지에 관해 묻는 현재의 장면이다.**
외부와 내부를 뒤바꾸었습니다. 소연이 묻고 듣는 현재의 틀이 외부이며 그 안에서 전하는 폭설 수색이 내부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2

Q20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글은 당시 도하의 동작을 보여 준 뒤

판단 과거의 재현은 확인되지만 별도 이야기 전달 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① 수영장이 두 번 나오므로 서로 다른 인물의 병렬식 구성이다.**
같은 장소가 두 번 나오면 병렬이라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같은 도하의 현재와 과거 장면을 보여 줍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도하가 모두 나오므로 두 중심인물의 복합 구성이다.**
과거와 현재의 도하를 별개의 중심인물로 센 것이 틀렸습니다. 시간만 다르고 같은 인물입니다.

× **③ 현재로 돌아왔으므로 과거 장면은 사건 순서상 현재 뒤에 놓인다.**
서술의 뒤에 나온 과거를 실제 시간에서도 뒤에 놓은 것이 틀렸습니다. 지난해 경기 장면은 현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 **④ 회상은 드러나지만 이 정보만으로 액자 구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사이에 지난해 경기의 동작이 펼쳐져 회상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감싸는 외부의 전달 상황은 없어 액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9 , E12 , E15

Q21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모두 도움을 청한 사람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민한다.

판단 시대가 다른 인물의 유사한 고민을 비교하게 합니다.

○ **① 다른 시대의 두 인물이 비슷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비교한다.**
1980년과 2020년의 인물이 모두 도움을 청한 사람을 받아들일지 고민합니다. 병렬 배치는 다른 시대의 비슷한 선택을 비교하게 합니다.

× **② 태호의 결정이 수연의 진료소 개설을 일으켰다는 인과를 밝힌다.**
태호의 결정이 수연의 개설을 일으켰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두 사건은 나란히 제시될 뿐 직접적인 원인·결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③ 수연이 태호에게 옛일을 들려주는 상황을 틀로 삼아 경험을 전달한다.**
수연이 태호에게 경험을 들려준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두 인물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 **④ 두 인물이 같은 해에 만나 겪는 하나의 사건을 두 쪽에서 보여 준다.**
같은 해에 만나 겪는 사건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1980년과 2020년의 서로 다른 이야기이며 두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3 , E15

Q22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떠돌이 장사꾼 하진이 세 마을을 방문한다.

> **근거 인용 2 · 문제 지문**
> 각 마을의 사건은 그곳에서 마무리되고

판단 하진이라는 같은 중심인물이 세 마을의 독립된 사건들을 잇습니다. 따라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입니다.

○ **① 피카레스크식 구성**
하진 한 사람이 세 마을을 방문하고 각 사건은 그 마을에서 마무리됩니다. 같은 중심인물이 독립된 삽화들을 잇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입니다.

× **② 옴니버스식 구성**
공통 주제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모았다는 근거보다, 같은 하진이 독립된 사건들을 잇는 근거가 직접 제시됩니다. 이 지문에 가장 맞는 이름은 피카레스크식입니다.

× **③ 액자 구성**

액자 구성으로 볼 전달의 틀이 없습니다. 하진이 겪는 여러 사건을 이을 뿐 외부 이야기 안에서 내부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 **④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으로 볼 시간 역전의 근거가 없습니다. 지문은 세 마을의 사건을 나열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배열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4

Q23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낯선 이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라는 공통 주제로 묶었다.

판단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공통 주제로 묶은 옴니버스식 특징입니다.

× **① 각 이야기가 완결되므로 작품 전체를 묶는 공통 의미는 없다.**

전체를 묶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낯선 이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라는 공통 주제가 제시됩니다.

○ **② 공통 주제로 독립된 이야기를 묶는 옴니버스식 특징이 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각 완결되고 공통 주제로 묶입니다. 여러 독립 이야기를 한 틀로 모은 옴니버스식 특징입니다.

× **③ 손님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들려주는 액자 구성이다.**

한 손님이 다른 두 사람에게 들려준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외부의 틀이 나오지 않습니다.

× **④ 같은 주인공이 도시를 옮겨 겪는 피카레스크식 특징이 있다.**

같은 주인공이 이동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서로 모르는 세 사람이 다른 시대와 도시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4 , E15

Q24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언니의 지난여름과 동생의 올해 봄이 번갈아 제시된다.

판단 이야기의 안팎, 흐름의 나란한 배치, 시간 근거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 **① 안팎의 구조와 두 흐름의 나란한 배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기자의 전달 상황과 자매의 경험은 액자의 안팎이고, 자매의 두 경험을 나란히 놓은 것은 병렬 배치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 **② 기자의 만남은 자매의 경험이 전달되는 외부 틀을 마련한다.**
기자가 자매를 만나 경험을 듣습니다. 이 전달 상황이 내부 이야기를 감싸는 외부의 틀입니다.

× **③ 내부에서 두 경험이 병렬되므로 두 경험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병렬이면 같은 시기라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언니는 지난여름, 동생은 올해 봄의 경험으로 시간이 다릅니다.

○ **④ 기록장을 덮는 장면은 경험 이야기가 끝나고 외부로 돌아왔음을 보인다.**
경험이 끝난 뒤 기자가 기록장을 덮습니다. 내부 이야기를 마치고 외부 이야기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2 , E13 , E15

Q25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늦겨울 새벽, 해진은 얼어붙은 산길을 따라

판단 언제와 어디서의 정보를 구별합니다.

○ **① 늦겨울 새벽은 시간 조건이고 산길·읍내 우체국은 장소이다.**
늦겨울과 새벽은 계절·시각을, 산길과 읍내 우체국은 장소를 알려 줍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 **② 늦겨울은 인물의 심리이고 우체국으로 향함은 사회 제도이다.**
늦겨울을 심리로, 이동을 제도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늦겨울은 계절이며 우체국으로 향한다는 행동만으로 제도는 알 수 없습니다.

× **③ 산길이 얼었으므로 작품의 정확한 연도와 지역 이름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연도와 지역명을 알 수 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계절·시각과 장소의 종류만 제시됩니다.

× **④ 첫 차가 오지 않았으므로 사건이 벌어지는 시각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시각이 전혀 없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첫 차가 오지 않아도 새벽이라는 시간 정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6 , E17

Q26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밭에 물을 댈 수 없게 된 사람들은

판단 가뭄이 물 부족을 만들고 배분 논의의 계기가 됩니다.

× **① 비가 오지 않는 장면은 인물의 선택과 떨어진 장식으로만 쓰인다.**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이 장식일 뿐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물을 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배분 순서를 정하려 모입니다.

× **② 저수지의 위치가 바뀌어 주민들이 새 마을로 이주하게 한다.**
위치 변화와 이주가 일어났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줄어 사용 순서를 논의합니다.

○ **③ 가뭄 때문에 주민들이 물 배분 순서를 논의하게 된다.**
비가 오지 않아 물이 부족해지고 주민들이 모여 배분 순서를 논의합니다. 자연적 배경이 다음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 **④ 가뭄이 주민들의 합의를 끝내어 더 논의할 필요를 없앤다.**
가뭄으로 합의가 끝났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사용 순서를 정하려고 모였을 뿐 합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7 , E20

Q27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집을 소유한 사람만 마을 대표로 출마할 수 있었다.

판단 소유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가 출마를 막습니다.

× **① 증명서가 없으므로 수민의 실제 거주 도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증명서가 없으면 거주 도시가 달라졌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증명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② 수민이 청원을 냈으므로 자연환경이 이동을 막았음이 드러난다.**
자연환경이 이동을 막았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출마를 막은 것은 날씨·지형이 아니라 주택 소유 자격 규칙입니다.

× **③ 담당자가 수민을 만났으므로 두 사람의 옛 원한이 드러난다.**
담당자와 옛 원한이 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접수 거절의 이유로 소유 증명서가 없다는 점이 제시됩니다.

○ **④ 재산 소유에 따른 출마 규칙이 수민의 참여를 제한한다.**
주택 소유자만 출마할 수 있어 세입자 수민의 접수가 거절됩니다. 사회적 배경인 자격 제도가 인물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7 , E20

Q28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한겨울의 강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였다.

판단 계절은 시간 정보이며 자연환경과도 연결됩니다.

× **① 자연환경과 관계되므로 사건의 시간 조건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자연적 배경이면 시간적 배경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시간과 자연환경의 성격을 함께 지닙니다.

× **② 계절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도 특정할 수 있다.**
계절만으로 연도까지 정할 수 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지문은 한겨울만 밝히고 연도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 **③ 계절을 알리고 얼어붙은 자연환경도 이해하게 한다.**
한겨울은 계절이라는 시간 정보이며 강이 얼어붙은 자연환경을 이해하게 합니다. 시간적·자연적 배경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 **④ 배를 띄우지 못하므로 이 도시의 법률이 항해를 금지한 것이다.**
법률이 항해를 금지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배를 띄우지 못한 이유는 강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7

Q29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비웃음을 산 기억 때문에 이번 발표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판단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주저를 낳습니다.

× **① 발표 신청 마감이 지나 버려 접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마감이 지났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소미는 과거의 비웃음이 떠올라 신청서를 내지 못합니다.

○ **② 과거 발표의 상처가 새로운 참여를 주저하게 한다.**
지난 발표에서 비웃음을 산 기억 때문에 새 신청을 망설입니다. 행동의 바탕이 되는 기억이므로 심리적 배경에 해당합니다.

× **③ 이전 발표의 성공 경험이 이번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
성공 경험과 자신감 상승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비웃음을 산 기억이 참여를 주저하게 합니다.

× **④ 주머니의 크기가 작아 신청서를 꺼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주머니가 작아서 꺼내지 못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손을 내밀었다가 그날의 웃음소리를 떠올려 다시 넣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8

Q30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해가 지기 전까지 짐을 꺼내야 했다.

판단 정해진 마감이 물건을 고르는 행동을 서두르게 합니다.

× **① 철거 날짜를 바꾸었기 때문에 유리는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철거 날짜를 바꾸어 계속 머문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하루 뒤 철거되므로 해 지기 전까지 짐을 꺼내야 합니다.

× **② 추억이 떠오르지 않아 유리는 집에 남은 물건을 전부 버린다.**
추억이 없어 물건을 모두 버린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며 더 머물고 싶지만 필요한 물건부터 상자에 담습니다.

× **③ 해가 지는 자연 풍경을 감상하느라 유리는 짐 정리를 미룬다.**
풍경 감상 때문에 미룬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지문은 마감에 맞추어 짐을 골라 담는 행동을 보여 줍니다.

○ **④ 퇴거의 마감 때문에 유리는 필요한 물건부터 골라 담는다.**
해 지기 전이라는 마감 때문에 필요한 물건부터 고릅니다. 당장 처한 상황적 배경이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8 , E20

Q31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겠네.”

판단 적막한 환경과 인물의 홀가분함을 분리해 읽습니다.

× **① 마당에 말소리가 없으므로 서우도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
말소리가 없으면 인물도 슬프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서우는 웃으며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 **② 등불이 흔들리므로 서우는 앞으로 생길 위험을 예감하고 있다.**
등불의 흔들림을 위험 예감으로 연결할 근거가 없습니다. 서우의 말과 웃음은 휴식의 홀가분함을 보여 줍니다.

○ **③ 마당은 적막하지만 서우는 혼자 쉬는 것을 홀가분해한다.**
마당에는 말소리가 없어 적막하지만 서우는 웃으며 휴식을 반깁니다. 장면의 분위기와 인물의 감정이 대비됩니다.

× **④ 서우가 웃으므로 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이어진다.**
인물이 웃으면 주변에서도 대화가 이어진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마당에는 누구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다시 볼 설명 E19

Q32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마을의 규칙은 낯선 사람에게 창고 열쇠를 빌려주지 못하게 했다.

판단 자연 조건·상황·사회 규칙·심리를 구별합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 **① 창고 열쇠를 빌려주지 않는 규칙은 폭우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배경이다.**
공동체 규칙을 자연적으로 생긴 조건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사람이 정한 열쇠 대여 규칙은 사회적 배경입니다.

○ **② 폭우와 막힌 산길은 현수의 이동을 제약하는 자연 조건이다.**
폭우 때문에 산길이 막혔습니다. 날씨·지형과 연결된 자연 조건이 현수의 이동을 제약합니다.

○ **③ 내일까지 약을 전해야 한다는 사정은 현수가 처한 마감 조건이다.**
현수는 내일까지 약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행동을 재촉하는 마감이므로 상황적 배경입니다.

○ **④ 초조함은 현수의 마음 상태이며 폭우라는 날씨와 구별된다.**
초조함은 인물의 마음이고 폭우는 바깥의 날씨입니다. 자연 조건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배경과 감정 자체는 구별됩니다.

다시 볼 설명 E16 , E17 , E18 , E19

Q33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고치던 겨울이 떠올랐다.

판단 장갑이 기억을 불러와 물건을 버리려던 행동을 바꿉니다.

× **① 아버지가 지금 서랍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표지이다.**
아버지가 지금 서랍 앞에 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장갑을 만지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겨울을 떠올립니다.

× **② 가족 간 소유권 다툼을 일으켜 갈등을 심화하는 직접 계기이다.**
소유권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지문은 연우가 기억을 떠올리고 버리려던 행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③ 아버지의 기억을 불러와 장갑을 대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장갑의 헤진 손끝을 만지며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리고 봉투를 접습니다. 장갑은 기억과 감정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 **④ 자전거를 고칠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로 입증하는 증거이다.**
수리 기술의 부족을 입증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전거를 고치던 기억만 떠올릴 뿐 기술 수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21

Q34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수첩의 첫 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판단 분실물을 돌려주는 과정이 만남과 공동 작업을 잇습니다.

× **① 작업실 주인과 태민의 오랜 원한을 풀어 주는 증거로 쓰인다.**
오랜 원한을 푼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첩을 돌려주는 날 처음 만납니다.

× **② 두 사람이 이전부터 함께 작업해 왔다는 관계를 확인해 준다.**
이전부터 함께 작업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 함께 도자기를 빚었다고 나옵니다.

○ **③ 주소를 찾게 해 두 사람의 만남과 다음 행동을 이어 준다.**
수첩의 주소를 따라 주인을 만나고 초대를 받아 공동 작업을 합니다. 수첩이 만남과 다음 사건을 매개합니다.

× **④ 도자기를 망가뜨려 태민이 작업실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도자기를 망가뜨려 떠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수첩을 돌려준 뒤 함께 도자기를 빚습니다.

다시 볼 설명 E22

Q35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서로 의심한 일을 사과했다.

판단 메모가 사실을 밝히고 사과로 이어져 오해 해소에 관여합니다.

○ **① 열쇠 위치의 사실을 밝혀 형제의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
메모로 실제 열쇠 위치를 확인한 뒤 형제가 서로 사과합니다. 메모는 사실 확인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푸는 계기입니다.

× **② 메모를 읽고도 사과가 없으므로 의심이 그대로 심화된다.**
사과가 없고 의심이 심해진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열쇠를 찾은 뒤 서로 의심한 일을 사과했다고 나옵니다.

× **③ 열쇠를 찾는 실용적 용도만 있으며 형제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메모를 읽고 열쇠를 찾은 뒤 서로 사과하여 대립이 달라집니다.

× **④ 열쇠를 숨긴 사람이 형임을 밝혀 동생의 의심을 확정해 준다.**
형이 숨긴 사실을 확정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에서 다른 서랍에 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2 , E24

Q36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연필에 대한 인물의 기억이나 특별한 평가는 제시되지 않는다.

판단 반복 등장은 확인되지만 특정 상징 의미의 근거는 부족합니다.

○ **① 작업 도구로 반복되지만 특정 상징을 확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연필은 치수·선·계산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반복은 확인되지만 신념 같은 별도 상징 의미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 **② 마지막 날에도 쓰였으므로 뒤에 연필이 부러질 사건을 준비한 복선이다.**
파손을 준비한 복선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뒤의 파손 사건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 **③ 계산에 사용되므로 인물과 동료 사이의 화해를 매개했다고 볼 수 있다.**
화해를 매개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계산에 썼다는 정보와 사람 사이 화해를 이어 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 **④ 세 번 등장했으므로 인물이 지켜 온 신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등장 횟수만으로 신념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 틀렸습니다. 인물의 신념과 연필을 연결하는 행동이나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1 , E23

Q37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전에 다투던 이웃들도 함께 비를 피했다.

판단 개별 차양을 함께 쓰는 지붕으로 바꾼 행동이 공동체적 의미를 만듭니다.

× **① 조각의 모양이 다르므로 주민들이 협력을 포기한 결과를 드러낸다.**
협력을 포기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다른 모양의 조각을 이어 붙여 이웃들이 함께 비를 피합니다.

○ **② 각자의 보호물을 함께 쓸 공간으로 바꾸는 협력의 가치를 드러낸다.**
각자 쓰던 차양을 하나의 지붕으로 만들고 다투던 이웃도 함께 이용합니다. 소재의 변화와 공동 행동이 협력이라는 주제와 이어집니다.

× **③ 지붕을 만들었으므로 모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되었음을 보인다.**
가정의 경제 문제까지 모두 해결했다는 말은 근거를 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공동 쉼터를 마련해 함께 이용하는 일입니다.

× **④ 비가 내리므로 인물들이 이웃을 향한 적의를 더 키우는 모습을 보인다.**
적의가 커졌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비 속에서 이웃이 함께 피하는 모습은 협력을 보여 줍니다.

다시 볼 설명 E23 , E24

Q38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사다리를 붙잡고 번갈아 올라 수리했다.

판단 사용권 다툼의 대상에서 공동 작업과 합의의 매개로 달라집니다.

× **① 처음에는 추억을 부르지만 마지막에는 과거 기억을 지우는 역할을 한다.**
추억을 부르고 지운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다리를 둘러싼 사용권 다툼과 공동 작업이 나옵니다.

× **② 지붕을 수리한 뒤 사라져 이웃들의 합의가 취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사다리가 사라지고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끝에는 사다리에 공동 사용 시간을 적어 둡니다.

○ **③ 사용 순서의 다툼 대상이었다가 공동 작업과 합의를 드러내게 된다.**
처음에는 사용 순서로 다투다가 함께 수리하고 사용 시간을 정합니다. 사다리는 대립의 대상에서 협력·합의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이 달라집니다.

× **④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막아 인물들을 서로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끝까지 고립시킨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뒤에서는 함께 사다리를 붙잡고 작업하며 사용 시간을 정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2 , E24

Q39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그 방수포로 이웃의 짐을 덮어 젖지 않게 했다.

판단 수선의 준비 관계와 함께 지키는 의미를 각각 설명합니다.

○ **① 앞의 수선은 뒤의 보호를 준비하고 공동 사용은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앞의 수선은 뒤에 짐을 보호하는 일을 준비하므로 복선입니다. 이웃들이 함께 붙잡고 여러 집의 짐을 덮는 행동은 협력이라는 의미를 더합니다.

× **② 여러 집의 짐이 있으므로 방수포가 훼손될 결말까지 미리 확정되어 있다.**
방수포가 훼손될 결말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래 여러 집의 짐이 놓여 있습니다.

× **③ 같은 물건이 반복되므로 수선과 폭우의 시간 순서는 뒤집혀 있다고 본다.**
반복 등장을 시간 역전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수선이 먼저, 폭우 때 사용이 나중이라고 제시됩니다.

× **④ 앞의 수선이 뒤에 쓰였으므로 마지막 공동 사용에 별도 의미는 붙일 수 없다.**
복선이면 다른 의미를 붙일 수 없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앞뒤의 준비 관계와 공동 사용의 의미는 서로 다른 근거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0 , E23 , E24

Q40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문제 지문**
> 이후의 이야기는 주어지지 않았다.

판단 제시된 우회·습득·반환을 넘어 관계의 지속이나 주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 **① 다리 공사는 예진이 원래 길을 벗어나 걷게 된 조건이다.**
다리 공사 때문에 원래 길을 벗어나 걷습니다. 공사라는 상황이 인물의 이동 경로를 바꾸는 배경 조건입니다.

× **② 명찰의 반환은 두 사람이 평생 우정을 지킨다는 작품의 주제를 확정한다.**
반환만으로 평생 우정이라는 주제를 확정한 것이 틀렸습니다. 두 사람은 물건을 돌려주고 인사했을 뿐 이후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 **③ 명찰의 연락처는 예진과 주인이 만나는 일을 이어 준다.**
예진이 명찰의 연락처로 주인을 찾아갑니다. 명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매개하는 소재입니다.

○ **④ 길을 돌아간 사건과 명찰을 주운 사건은 제시된 이동 과정에서 연결된다.**
공사 때문에 돌아가던 길에서 명찰을 줍습니다. 우회와 습득은 지문에 제시된 이동 과정 안에서 연결됩니다.

다시 볼 설명 E20 , E22 , E23

Q41 예시 답안

사건 순서: ㉢→㉠→㉡. 서술 순서: ㉡→㉢→㉠.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오늘의 결과를 먼저 보여 주고 석 달 전과 어제의 과정으로 돌아가므로, 제시한 차례가 실제 사건의 시간 순서와 다릅니다.

채점 요소

- 사건 순서: ㉢→㉠→㉡.
- 서술 순서: ㉡→㉢→㉠.
- 구성 이름: 역순행적 구성. 역전적 구성·입체적 구성도 인정합니다.
- 판단 근거: 오늘의 결과를 먼저 제시한 뒤 석 달 전과 어제의 과정을 보여 주어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판단 할 때 유의할 점 두 순서의 이름을 뒤바꾸지 않습니다. 화살표는 차례를 뜻하며 별도의 인과 설명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6 , E08

Q42 예시 답안

앞 단서: 우산 손잡이에 손전등을 달아 둠. 뒤 사건: 정전 때 깨진 유리를 비추며 안내함. 기능: 복선. 설명: 손전등을 달아 둔 단서가 뒤의 안내 행동을 미리 준비합니다.

채점 요소

- 앞 단서: 우산 손잡이에 작은 손전등을 달아 둠.
- 뒤 사건: 정전 때 깨진 유리를 비추며 사람들을 안내함.
- 기능 이름: 복선.
- 한 문장 설명: 손전등을 달아 둔 단서가 뒤의 안내 행동을 미리 준비한다고 연결합니다.

판단 할 때 유의할 점 “같은 물건이 두 번 나왔다”만으로 끝내면 준비 관계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전이 손전등 때문에 일어났다고 쓰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0

Q43 예시 답안

외부 이야기: 현재 도서관에서 기증자에게 책 이야기를 듣고 신청서를 내미는 일. 내부 이야기: 기증자가 책을 잃었다가 십 년 뒤 되찾은 경험. 구성 이름: 액자 구성.

채점 요소

- 외부 이야기: 현재 도서관에서 기증자의 경험을 듣고 신청서를 내미는 일.
- 내부 이야기: 기증자가 어린 시절 잃은 책을 십 년 뒤 되찾은 경험.

- 구성 이름: 액자 구성.

판단 할 때 유의할 점 현재·과거라는 시간 이름만 쓰지 말고 각각 어떤 사건인지 밝혀야 합니다. 액자는 시간 차이보다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조로 판단합니다.

인정 범위 이야기의 구분이 맞으면 외부·내부, 외화·내화, 바깥·안쪽이라는 표현을 모두 인정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2 , E15

Q44 예시 답안

큰눈은 버스 운행을 막아 두 사람이 함께 머물게 하는 자연적 배경입니다. 지도는 지도에 표시된 길을 바탕으로 다음 이동을 의논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채점 요소

- 큰눈→운행 중단→함께 머묾의 연결을 밝힌다.
- 지도→길 확인→이동 논의의 연결을 밝힌다.

판단 할 때 유의할 점 큰눈은 슬픔, 지도는 희망이라고만 쓰면 지문 속 작용의 근거가 빠집니다. 다음 날 실제로 길을 찾았다고 결과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7 , E20 , E22

Q45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자료 A (나)**
> 이야기는 사흘 전 오후로 돌아간다.

판단 기록 전달→이름 누락 확인→대조·수정→낭독회 뒤 정리 순서입니다.

× **① 오늘 밤 다음 작업에 합의한 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낭독회를 준비한다.**
다음 작업에 합의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다음 협업은 미정이며 사흘 전의 기록 전달은 오늘 밤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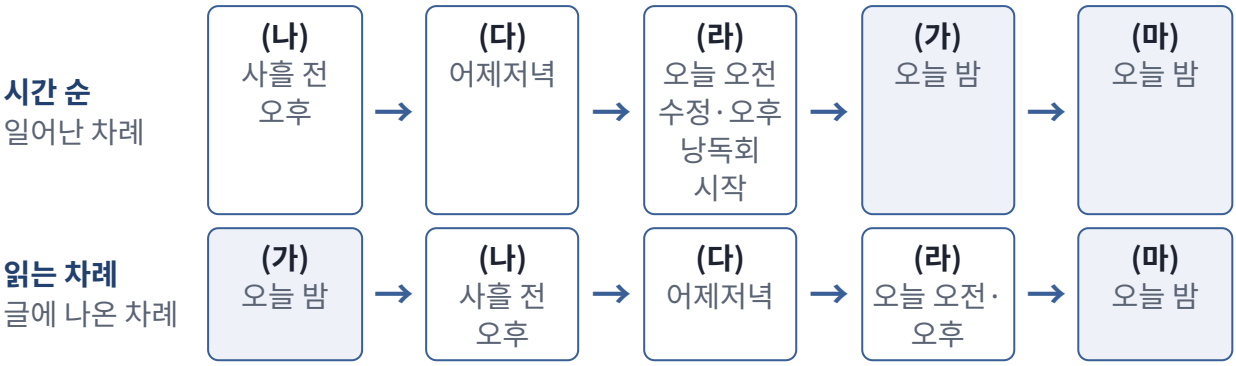
× **② 오늘 오전 역할을 고친 뒤 어제의 안내문이 도착하여 다시 갈등이 시작된다.**
오늘 오전 수정 뒤에 어제 안내문이 왔다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안내문의 이름 누락을 확인한 뒤 오늘 오전에 고칩니다.

× **③ 오늘 밤 안내문 확인 뒤 처음 기록을 모으고, 그다음 날 낭독회를 연다.**
오늘 밤 확인 뒤 기록을 모았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가)는 결과를 먼저 보여 주고 (나)에서 사흘 전 기록 전달로 돌아갑니다.

○ **④ 기록 전달→안내문 확인→역할 수정→낭독회 뒤 정리 순서이다.**
(나) 기록 전달→(다) 이름 누락 확인→(라) 역할 수정·낭독회→(가)·(마) 오늘 밤 정리 순서입니다. 서술 순서와 구별한 사건의 시간 순서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6 , E08

도해 **자료 A의 두 순서**



→ 그 줄 안에서의 차례 · (가)·(마)는 같은 밤의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Q46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자료 A (라)**
> 둘은 표시된 문장들을 한 줄씩 대조했다.

판단 자료 대조를 통해 기록과 편집의 역할을 구별하고 인정합니다.

○ **① 수첩과 편집 원고를 대조하고 두 사람의 역할을 함께 밝힌다.**
수첩과 원고를 대조한 뒤 선우가 역할 누락을 인정하고 표기를 고칩니다. 근거 확인과 합의가 갈등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행동입니다.

× **② 보람이 서운함을 참고 선우의 이름만 적힌 안내문을 그대로 두기로 한다.**
안내문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라)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름과 역할을 안내문에 덧붙입니다.

× **③ 선우가 다음 작업을 제안하여 보람에게 수첩을 영구히 넘겨받는다.**
선우가 수첩을 영구히 넘겨받았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마)에서 보람은 수첩을 자기 가방에 넣으며 다음 협업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 **④ 낭독회 날짜가 미뤄져 두 사람이 대조 없이 각자 작업을 마무리한다.**
날짜를 미루고 각자 마무리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예정된 낭독회 전에 두 사람이 함께 자료를 대조하고 수정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2 , E03 , E22

Q47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자료 A (나)**
> 어떤 말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볼 수 있게 수첩도 가져갈게

> **근거 인용 2 · 자료 A (라)**
> 보람은 수첩과 편집된 원고를 회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판단 앞의 수첩 보존·지참이 뒤 대조의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 **① 뒤에서 기록과 편집의 역할을 확인할 자료를 마련해 두는 복선이다.**
(나)의 수첩 지참 계획이 (라)의 실제 자료 대조로 이어집니다. 뒤의 역할 확인을 준비하므로 복선이며, 수첩은 갈등 해소에도 관여합니다.

× **② 이야기와 무관한 물건을 소개하여 뒤 사건과의 연결을 끊는 말이다.**
뒤 사건과 연결을 끊는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라)에서 그 수첩을 편집 원고와 나란히 놓고 실제로 비교합니다.

× **③ 보람이 기록을 폐기해 역할 확인을 포기할 것임을 미리 알려 준다.**
기록을 폐기하고 확인을 포기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수첩은 역할 대조에 쓰이고 끝에도 보람이 간직합니다.

× **④ 선우가 낭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미리 설명하는 단서이다.**
선우의 불참을 설명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선우는 낭독회를 열며 역할을 수정한 과정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0 , E22

Q48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자료 A (마)**
> 다음 일을 함께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채였다.

판단 역할 표기 문제 해결과 이후 협업의 미결정을 나눕니다.

× **① 함께 의자를 포갰으므로 다음 작업의 역할 분담에도 이미 합의했다.**
의자를 함께 포갠 일을 다음 협업의 합의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일을 함께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② 역할 표기는 고쳤지만 다음 협업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라)에서 역할 표기는 합의했지만 (마)에서 다음 협업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결된 문제와 별도로 이후 선택을 남기는 열린 결말의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첩을 가방에 넣었으므로 선우가 편집한 원고도 함께 가져갔다.**
원고도 가져갔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보람은 정리된 원고를 선우에게 돌려주고 수첩만 가방에 넣습니다.

× **④ 보람이 답하지 않았으므로 수정했던 이름표를 다시 떼기로 했다.**
이름표를 떼기로 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답하지 않은 것은 다음 작업의 제안이며 수정된 역할 표기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05 , E24

Q49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자료 B (라)**
> 노인은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판단 현재의 수선 의뢰를 틀로 노인의 과거 경험을 들려줍니다. (라)는 경험을 전하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말이 끝난 뒤 단추를 만지는 현재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한 문단 안에서도 내부에서 외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 **① 어린아이의 길 찾기가 외부이고 견습공의 수선이 그 안에 들어 있다.**
외부와 내부를 뒤바꾸었습니다. 현재 견습공의 가게가 전달의 틀이며 어린 시절의 길 찾기는 그 안에서 전하는 경험입니다.

○ **② 현재 가게의 의뢰·응대가 외부이고 노인이 들려준 경험이 내부이다.**
현재의 의뢰와 응대가 외부 이야기이고 노인의 과거 경험이 내부 이야기입니다. (라)의 “노인은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부터 현재 가게로 돌아오므로 문단 경계와 안팎의 경계는 다릅니다.

× **③ 현재의 노인이 외부 인물이고 과거의 노인은 별개의 주인공이다.**
과거의 노인을 별개의 주인공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지금의 노인이 자신이 어릴 때 겪은 일을 들려줍니다.

× **④ 단추가 외부이고 외투가 내부이므로 물건의 포함 관계가 액자이다.**
물건의 포함 관계로 액자를 판단한 것이 틀렸습니다. 액자 구성은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2

Q50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자료 B (다)**
> 외투가 작아져 더 입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 천과 단추 하나는 따로 간직했다.

판단 어린 시절의 도움→가족 재회→보관→성인의 이사 경험 순서입니다.

○ **① 어린 시절의 도움에서 성장 뒤 단추를 간직한 경험으로 순행한다.**
어릴 때 도움을 받고, 외투가 작아진 뒤 물건을 간직하며, 성장 후 이사할 때 단추를 만지는 차례입니다. 내부 이야기의 시간은 순행합니다.

× **② 현재의 의뢰부터 어린 시절까지 매 단락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
매 문단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내부의 경험은 어린 시절에서 성장 뒤로 이어지며, (라) 끝의 현재 동작은 외부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 **③ 액자 안의 이야기이므로 순행과 역순행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액자 안이면 시간 배열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야기의 안팎과 내부 사건의 순행·역순행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④ 가족 재회가 길을 잃은 일보다 먼저 제시되어 역순행을 이룬다.**
가족 재회가 길을 잃은 일보다 먼저 나온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길을 잃고 도움을 받은 뒤 가족을 찾았다고 나옵니다.

다시 볼 설명 E06 , E07 , E15

Q51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자료 B (라)**
> 누군가 내가 있는 곳을 물어봐 주던 하루가 떠올랐거든.

판단 단추는 기억을 부르고 현재의 수선 의뢰와 이야기를 잇습니다.

○ **① 노인에게 돌봄의 기억을 불러오며 현재의 의뢰와 경험 전달을 이어 준다.**
노인은 단추를 만지며 돌봄을 받은 날을 떠올리고, 현재에는 그 단추를 달아 달라고 부탁하며 경험을 들려줍니다. 기억을 드러내고 사건을 매개하는 두 기능이 함께 나타납니다.

× **② 잃은 길을 정확히 표시하는 지도이며 노인이 이사를 멈추게 하는 수단이다.**
단추가 지도이며 이사를 멈추게 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골목 이름은 천에 적혀 있고 노인은 성장 뒤 여러 번 이사했습니다.

× **③ 노인에게 가게 주인의 이름을 증명해 주며 견습공의 가족 관계를 밝힌다.**
주인의 이름과 혈연을 밝힌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단추는 과거 도움의 기억과 현재 의뢰를 이어 줍니다.

× **④ 과거의 도움을 지우게 하는 물건이며 현재 수선 의뢰를 거절하게 만든다.**
기억을 지우고 의뢰를 거절하게 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노인은 기억을 간직하고 견습공은 외투를 받아 단추를 답니다.

다시 볼 설명 E21 , E22 , E24

Q52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자료 B (마)**
> 나는 작은 일의 크기를 무엇으로 재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판단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뒤 견습공의 응대와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 **① 외투를 받아 자리를 고르는 행동은 내부 이야기를 들은 뒤의 반응이다.**
노인의 말이 끝난 뒤 견습공은 외투를 받아 단추 자리를 고릅니다. 내부 이야기를 들은 뒤 외부 인물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 **② 작품은 도움의 의미를 과거 경험과 현재 행동의 연결 속에서 드러낸다.**
노인이 받은 작은 도움의 경험 뒤에 견습공도 수선을 맡습니다. 과거 경험과 현재 행동의 연결이 도움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 **③ 견습공은 단추가 작은 일이란 처음 판단을 고수하며 노인을 돌려보낸다.**
처음 판단을 고수하며 돌려보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견습공은 셔터를 내리지 않고 수선하며 작은 일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 **④ 노인의 경험은 현재의 견습공이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처음에는 작은 일도 맡아야 하는지 망설였으나 끝에서는 그 일의 크기를 재던 기준을 돌아봅니다. 내부 이야기가 외부 인물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5 , E12 , E21

Q53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자료 C (마)**
> 두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잠시 짐을 내려놓았다.

판단 삼십 년 전 섬과 올해 봄 도시의 두 흐름을 나란히 놓은 병렬식 구성입니다. 두 인물은 만나지 않지만, 자신이 관리하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주는 선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① 규호가 다정의 말을 듣는 틀 안에 두 사람의 과거가 포함된 액자 구성이다.**
규호가 다정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두 흐름을 보여 줄 뿐 외부의 만남·전달 틀이 없습니다.

× **② 다정 한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 도시로 이동하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다정이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장소의 두 인물이며 같은 중심인물의 이동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 **③ 한날의 섬과 도시를 교차해 같은 폭풍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같은 날의 폭풍을 보여 준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섬은 삼십 년 전, 도시는 올해 봄이며 도시에는 같은 폭풍의 이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 **④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 두 인물의 선택을 비교하게 한다.**
시대가 다른 두 흐름을 나란히 놓고 마지막에도 두 사람의 개방 행동을 견줍니다. 병렬식 구성이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주는 선택의 공통점을 드러냅니다.

다시 볼 설명 E13 , E15

도해 **자료 C의 두 흐름**

흐름	배경의 제약	망설임	개방 행동
다정 **삼십 년 전 · 섬**	강풍으로 마지막 배가 뜨지 못함	창고 안 빈 자리를 떠올렸지만 열쇠를 내주지 못함	직접 창고를 열고, 열쇠를 가게 벽 고리에 걸어 둠
규호 **올해 봄 · 도시**	회원만 방을 쓸 수 있는 규칙	빈 방을 보고도 안내판을 다시 가리킴	시간제 개방을 제안하고, 방 열쇠를 안내판 아래에 걺

병렬: 나란한 두 흐름(두 사람은 만나지 않음) · 공통점: 자신이 관리하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줌

Q54 정답 ②

> **근거 인용 1 · 자료 C (다)**
> 가족에게는 회원증이 없었다.

판단 섬에서는 강풍의 운항 제한, 도시에서는 회원 자격의 사용 제한이 작용합니다.

× **① 섬의 강풍과 도시의 회원 규칙은 둘 다 날씨 때문에 생긴 자연 조건이다.**
회원 규칙도 자연 조건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강풍은 자연적 배경이지만 회원 자격은 사람이 정한 사회적 조건입니다.

○ **② 섬의 강풍은 이동을 막고 도시의 회원 규칙은 방 사용을 제한한다.**
섬에서는 강풍으로 배가 뜨지 못하고 도시에서는 회원증이 없어 방을 쓸 수 없습니다. 자연적·사회적 배경이 각각 행동을 제약합니다.

× **③ 두 장소 모두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인물들은 이동할 수 있는데 머무르기를 고른다.**
두 장소 모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섬 사람들은 배가 뜨지 못해 다음 날까지 머물 곳을 찾습니다.

× **④ 도시의 가족은 방이 없어 기다리지 못하고 섬 사람들은 회원증이 없어 못 잔다.**
두 장소의 제약을 뒤바꾸었습니다. 도시에는 빈 방이 있지만 회원 규칙이 막고, 섬에는 회원증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볼 설명 E17 , E20

Q55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자료 C (나)**
> 혼자 쥐던 열쇠를 가게 벽의 고리에 걸어 두며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렸다.

판단 열쇠를 다루는 변화는 공간을 타인에게 여는 선택과 이어집니다.

× **① 방문객이 사라진 뒤 모든 공간을 폐쇄하는 결정을 상징한다.**
모든 공간을 폐쇄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다정은 이후에도 창고를 열고 도서관은 일부 시간을 누구에게나 개방합니다.

× **② 두 사람이 열쇠를 잃어버려 공간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열쇠를 잃고 책임을 피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두 인물은 개방 방식을 마련하고 열쇠를 정해진 곳에 걸어 둡니다.

× **③ 같은 열쇠가 시대를 건너 전해져 두 인물의 혈연을 밝히는 증거가 된다.**
같은 열쇠의 전달과 혈연을 확정한 것이 틀렸습니다. 각 장소의 다른 열쇠일 뿐 두 인물의 관계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 **④ 혼자 관리하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주는 선택을 구체화한다.**
두 인물 모두 공간을 열고 열쇠를 걸어 둡니다. 열쇠를 다루는 행동이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공통 의미를 구체화합니다.

다시 볼 설명 E23 , E24

Q56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자료 C (마)**
> 오래전 섬의 창고에서 다정은 자리를 내어 주려고 물건을 한쪽으로 밀었다.

판단 나란히 놓인 선택의 의미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경험을 직접 전했거나 만났다고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 **① 마지막 장면이 나란히 놓였으므로 다정과 규호가 같은 공간에서 만났다고 본다.**
나란한 장면을 실제 만남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오래전 섬과 올해 도시라는 서로 다른 시공간이 제시됩니다.

× **② 공간을 열어 주었으므로 그 가족의 앞으로 살 집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주거 문제까지 모두 해결했다는 말은 근거를 넘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가족이 몇 시간 기다릴 방을 이용한 일입니다.

× **③ 두 열쇠가 같은 기능을 하므로 다정이 규호에게 자기 열쇠를 건넨 셈이다.**
기능이 비슷하면 물건도 전달되었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두 장소에 각각 열쇠가 있을 뿐 다정이 건넨 사건은 없습니다.

○ **④ 선택은 비교되지만 다정의 행동이 규호에게 전달된 근거는 없다.**
두 사람이 공간을 여는 선택은 비교되지만 경험을 직접 전달했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병렬의 의미 연결과 실제 전달 사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볼 설명 E13 , E20 , E24

Q57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자료 D (나)**
> 며칠 전 자신의 짐이 밀려났던 일이 떠올라

판단 손해 본 기억이 현재 경계하는 마음의 바탕이며 규칙·비는 별도의 조건입니다.

○ **① 이전 손해의 기억이 규선의 경계심을 낳고 비와 장터 규칙도 행동 조건이 된다.**
규선은 짐이 밀렸던 기억 때문에 먼저 말 걸기를 꺼립니다. 이 심리적 배경에 비와 장터의 운반 규칙이라는 바깥 조건도 함께 작용합니다.

× **② 입구에 짐을 쌓지 못하는 규칙은 비가 그치면 사라지는 자연적 배경이다.**
규칙을 자연적 배경으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입구에 짐을 쌓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정한 규칙이며 비가 그치면 없어진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 **③ 규선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까닭은 해린이 끈을 묶는 모습을 못 보았기 때문이다.**
묶는 모습을 못 보았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규선은 그 모습을 보고도 지난 일을 떠올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④ 비가 내리므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를 믿고 다툼 없이 행동한다.**
처음부터 다툼이 없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다)에서도 누구의 상자를 먼저 실을지 맞서다가 규선의 행동으로 협력이 시작됩니다.

다시 볼 설명 E17 , E18 , E20

Q58 정답 ①

> **근거 인용 1 · 자료 D (다)**
> 규선은 자기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해린의 가장 낮은 선반에 있던 상자를 수레에 함께 실었다.

판단 자기 차례의 고집을 바꾸어 위험이 큰 짐부터 공동 운반합니다.

○ **① 규선이 자기 상자를 내리고 낮은 선반의 상자를 먼저 싣는다.**
규선은 자기 상자를 내려놓고 침수 위험이 큰 낮은 선반의 상자를 수레에 싣습니다. 자기 차례보다 위험을 기준으로 삼는 행동이 갈등을 협력으로 바꿉니다.

× **② 두 사람이 장터 규칙을 없애 입구에 짐을 쌓아 두기로 합의한다.**
장터 규칙을 없앴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위쪽 공동 보관실로 옮기기로 합니다.

× **③ 해린이 규선의 상자를 버리고 자기 짐만 먼저 공동 보관실로 옮긴다.**
해린이 상자를 버렸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규선이 자기 상자를 잠시 내렸고 두 사람은 위험한 짐부터 함께 옮깁니다.

× **④ 비가 멎자 두 사람은 수레를 접고 별도의 운반을 포기한다.**
비가 멎어 운반을 포기했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수레로 공동 운반을 시작합니다.

다시 볼 설명 E02 , E03 , E22 , E24

Q59 정답 ③

> **근거 인용 1 · 자료 D (라)**
> 앞서 묶은 끈이 판을 잡아 주어 상자가 옆으로 밀려 떨어지지 않았다.

판단 앞의 보강이 뒤의 상자 낙하 방지를 준비합니다.

× **① 같은 끈이 반복되므로 두 사람의 수리 비용 문제가 끝났음을 알린다.**
끈의 반복이 비용 문제 해결을 뜻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마)에서는 아직 바닥을 고칠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 **② 끈이 물을 막아 창고 바닥이 젖지 않았다는 결과를 미리 설명한다.**
끈이 물을 막았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끈은 수레 옆판을 잡아 주며 창고 바닥은 젖은 채 남습니다.

○ **③ 앞서 옆판을 묶은 행동이 뒤에 상자가 떨어지지 않는 일을 준비한다.**
(나)에서 옆판을 묶어 둔 끈이 (라)에서 상자의 낙하를 막습니다. 앞의 보강이 뒤의 사건을 준비하는 복선입니다.

× **④ 끈을 묶어 둔 일이 두 사람이 수레를 처음 사게 된 원인임을 밝힌다.**
끈을 묶은 일이 수레 구입의 원인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수레를 산 것은 (가), 끈으로 보강한 것은 그 뒤인 (나)입니다.

다시 볼 설명 E10 , E22

Q60 정답 ④

> **근거 인용 1 · 자료 D (마)**
> 바닥을 고칠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판단 협력·합의가 생겼어도 창고 복구와 비용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릅니다. 아래 ×가 정답입니다.

○ **① 규선의 감사는 끈을 묶는 모습을 보고도 말하지 않던 태도와 대비된다.**
(나)에서는 보고도 말하지 않았으나 (마)에서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전후 행동을 비교하면 규선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비가 그쳤다는 자연 조건의 변화와 창고의 복구 완료는 같은 사실이 아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젖어 있고 수리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연 조건의 변화와 복구 완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 **③ 수레는 다툼의 대상에서 공동 작업과 사용 합의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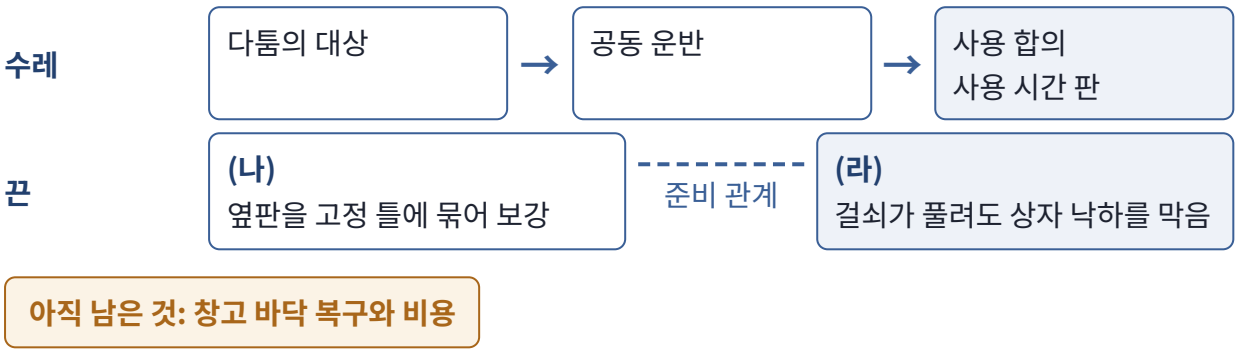
처음에는 수레 사용으로 다투지만 뒤에는 함께 운반하고 사용 시간을 정합니다. 같은 소재가 대립에서 협력·합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기능이 달라집니다.

× **④ 공동 사용에 합의했으므로 창고 복구와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되었다.**

사용 합의가 복구·비용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판단이 틀렸습니다. 바닥은 아직 젖어 있고 비용 계산을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다시 볼 설명 E05 , E22 , E24

도해 **자료 D의 물건과 관계**



아직 남은 것: 창고 바닥 복구와 비용

→ 차례 · 점선 = 준비 관계